

# 한글사진 잡지

[www.pask.net](http://www.pask.net)

vol. 520

The Journal of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11 2023  
November



2023년 서울시 민간축제 지원·육성 사업

2023 제8회  
**대한민국  
사진축전**  
2023 World Photo Festa In KOREA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2023 서울포토편스티벌 in aT  
2023 Seoul Photo  
Festival In aT

2023 SEOUL  
Photo Festival in aT

2023.12.6.Wed-12.10.Sun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장

주최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주관 대한민국사진축전 조직위원회

후원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 Contents

November 2023 Vol.520

Cover Story

## 안영현(대구) - For the dream flight

사람은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듯이 제라늄꽃 또한 머나먼  
여정을 비행하며 번식 하게 된다.  
제라늄 씨앗이 더 멀리 날기 위해 목을  
축이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새의 모습으로  
연출하여 촬영하였다.

Fuji GFX 50R/120mm 마이크로렌즈  
ISO 100, F16, 3/5초, Exp-0.3

03	<b>Headnote</b> 사진진흥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주세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선종백
38	<b>전시광고</b> "바다, 섬, 등대, 그리고 시간의 흐름" - 김남규(제주)
42	<b>전시광고</b> Challenge : Aurora - 김민주(구미)
46	<b>전시광고</b> 사각 프레임으로 보는 하안세상 - 문인호(대구)
50	<b>Photo Essay 01</b> 새들의 날갯짓 속에 시간 멈춘 DMZ 천상의 메신저 두루미 떼 내려 앉는다 - 김효경(안산)
54	<b>지상전 01</b> 폭풍한설 속에서도 늘 푸르리라 노송의 향기 - 이상선(전주)
58	<b>Photo Essay 02</b> '포도 대신 감' 누천년 아성에 도전한다 청도 와인 터널 - 윤석순(제주)
62	<b>지상전 02</b> 재개발 뒤편길서 발견한 사람과 풍경 모종동 아카이브 - 김인숙(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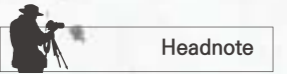
14



38



42



Headnote

## 사진진흥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주세요

우리협회는 1961년 창립되어 1963년 1월 30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사진예술 단체입니다. 60여 년의 긴 시간이 흐르며 국가의 예술에 대한 지원책이 법안으로 제정되어 왔으며, 현재 개별 장르별 진흥법이 존재하지 않는 장르는 사진과 건축 분야가 유일합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을 통해 드디어 2023년 9월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어렵게 통과하였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일단 첫 단계를 넘어섰고 앞으로도 상임위와 법사위, 그리고 본 회의 세 단계를 거쳐야 법률이 제정되고 공포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진흥법의 제정은 사진작가의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각 지회, 지부가 사업신청을 하거나 창작활동 지원을 요청할 때 커다란 법령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진예술의 독립적이고 확고한 지위를 공표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우수찬 이사장을 비롯한 제30대 임원이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 협회는 회원님들의 창작활동을 위한 소중한 터전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힘을 모으고 서로 합심하여 우리의 염원인 사진진흥법의 통과를 통해 사진예술과 협회의 발전을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2023년 11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선종백



# Contents

November 2023 Vol.520



66 **Review & Preview**  
대구사진비엔날레  
다시, 사진으로!, 사진의 영원한 힘 - 김재훈

72 **Photo Theory**  
디지털 시대에도 영감주는 장르  
정물사진 Still Life - 윤은숙(경기광주)

76 **Travel destination**  
폴리앗과 다윗은 지금도 전쟁 중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왜 싸우나 - 최승언

80 **Society News / Member Plaza**  
협회소식, 회원동정, 분과소식

89 **Gallery**  
사각 프레임으로 보는 하얀채상 - 문인호 개인전 외

## 한국사진

발행인 | 유수찬  
펴낸곳 |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1701호  
전화 | 02-2655-3131  
팩스 | 02-2655-3130  
URL | <http://www.pask.net>  
E-mail | [koreapask@daum.net](mailto:koreapask@daum.net)  
웹하드 | ID : kpassk / PW : kpassk  
펴낸날 | 2023년 11월 1일  
등록일 | 2017년 4월 14일 등록번호 양천, 라00087  
위원장 | 백만중  
출판팀장 | 손석윤  
출판위원 | 김명옥, 박경서, 이정용, 최영태, 황길연  
편집장 | 노성진(010-3387-0244)  
제작 | 도서출판 피알에이드(02-2264-1996)  
알림 | 회보 「한국사진」에 실린 상업광고와 글은 광고주와 필자의 견해이며, 본 협회나 편집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투고안내  
표지 및 내지원고는 편집디자인 중 작가노트 또는 작품원고 일부는 편집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1년 10만원  
계좌 국민은행 031-25-0001-564 예금주 한국사진작가협회  
사무처로 입금 확인하시고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문의·구독 및 배송관련 문의 02-2655-3131  
웹하드 | ID : kpassk / PW : kpassk



2023년 서울시 민간축제 지원·육성 사업

# 2023 제8회 대한민국 사진축전

2023 World Photo Festa In KOREA



## 2023 서울포토펬스티벌 in aT 2023 Seoul Photo Festival In aT

## 2023 SEOUL Photo Festival in aT

2023.12.6.Wed-12.10.Sun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장





## 2023 서울포토펬스티벌 in aT 제8회 대한민국사진축전 행사개요

2023 서울포토펬스티벌 in aT - 제8회 대한민국사진축전은 대한민국 사진예술을 대표하는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 사진작가협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사진축전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대규모 사진예술 문화행사이다. 본 행사는 “사진, 시민들과 함께하다” 슬로건으로 ‘20년도 전 세계 코로나-19발병으로 인해 위축된 삶을 사진예술 문화향유를 통해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사진작가, 사진업종사자에게 본 행사를 계기로 사진이라는 매개체로 참여작가와 일반 대국민, 관람객, 사진애호가, 사진업종사자 등 피폐해진 삶을 극복하고, 사진 예술 콘텐츠산업 대중화를 통해 경제적 도움과 세계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

### 1. 개요

- 사업명 2023 서울포토펬스티벌 in aT - 제8회 대한민국사진축전
- 영문명 2023 Seoul Photo Festival in aT  
2023 World Photo Festa in Korea
- 슬로건 사진, 시민들과 함께하다!! - Photo, With the Citizen!! (변경가능)
- 행사기간 2023년 12월 6일(수) ~ 2023년 12월 10일(일)  
개전식 2023년 12월 6일(수) 오후3시(예정)
- 행사장소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장 (3,793㎡, 약1,200평)
- 주최/주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 대한민국사진축전 조직위원회
- 후원추진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의회, 전라북도, 한국스카우트연맹 등

### 2. 목적

- 2020년 전 세계 창궐한 코로나-19로 위축되고 지친 삶을 서울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사진예술 문화 향유를 통해 행복한 생활 속 사진예술 보편화를 추구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사진예술의 연령층 확대, 메카니즘 확대, 다양성을 겸비한 사진예술 작품 발굴 통해 작품 발표 기회 확대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 사진문화예술 행사 참여작가 및 기관, 신진작가 발굴 등 확대에 따른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행사로 도약할 것을 기대한다.



## 2023 서울포토펬스티벌 in aT 제8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사업내용

2023 서울포토펬스티벌 in aT - 제8회 대한민국사진축전은 “Photo, With the Citizen!!” 메인 슬로건으로 다양한 사진예술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참여작가와 관람객, 컬렉터, 사진애호가, 사진업종사자들, 시민들 모두가 생활 속 사진예술 축전 행사로 진행하고자 한다. 청소년 사진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잰버리 기획전, 일상사진공모전, 특별초대전, 참여작가 포토부스전, 지자체 및 기관 관광홍보부스전, 사진기자재전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장 현장에서 사진촬영회 개최로 다양한 사진예술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본 행사가 사진예술 생활문화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 3. 세부 대표 프로그램(안)

- 제8회 대한민국사진축전 - 2023 World Photo Festa in Korea
- 제1회 한국청소년사진제  
청소년들의 보는 사진예술 문화에서 직접 참여하는 예술로의 장 마련
-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잰버리 기획전  
2023. 8. 1~12까지 새만금에서 개최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지구촌이 하나되고 대한민국이 함께하는 청소년대축제 사진기획전
- 일상사진공모전  
일반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사진예술 참여를 통한 신진작가 발굴 및 생활사진예술 문화 조성을 위한 대중들에게 기회부여
- 참여작가 포토부스전
- 지자체 및 기관 부스전
- 사진관련 종사 협력업체 사진기자재전
- 시민들과 함께하는 사진촬영회

※ 상기 프로그램 메뉴구성(안)은 주최측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2023 World Photo Festa In KOREA

2023 SEOUL Photo Festival in aT



2023 서울포토펬스티벌 in aT  
제8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일자별 프로그램(안)



4. 일자별 프로그램(안)

- 개전식 2023년 12월 6일(수) 오후3시(예정)
- 한국스카우트잼버리의 날 2023년 12월 7일(목) 오후1시(예정)
- 시상식 2023년 12월 8일(금) 오후1시(예정)  
한국 청소년 사진제 & 일상사진공모전 수상자 대상
- 관람시간 2023년 12월 6일(수) ~ 12월 10일(일) 오전10시~오후7시  
(단, 12월 10일(일) 관람은 오후1시까지만 가능)
- 시민들과 함께하는 사진촬영회  
2023년 12월 7일(목) ~ 12월 9일(토)  
가족 · 개인 프로필 사진 + 스마트폰 사진 촬영  
“바로” 이벤트 - 사진 잘 찍는 법부터 출력까지 모두 “바로”
- 인물중심 촬영 기자재업체 홍보  
2023년 12월 7일(목) ~ 12월 9일(토)  
업체별 일정시간 추후 공지

5. 기본 엠블럼



2023 SEOUL Photo Festival in aT

PHOTO AWARDS CCPP

충무아트센터는 기후위기 심각성에 공감하며  
모두의 기후 행동을 앞당기기 위한  
제1회 기후환경 사진공모를 개최합니다.  
기후와 환경변화에 직면한 인류에게  
사진으로 공존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공모주제 인간과 지구의 공존을 위한 시시비비(是非非非)를 주제로 한 작품

공모부문 ▪ 포트폴리오: 12장 내외로 주제를 표현한 시리즈  
▪ 단사진: 주제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작품(최대 5점)

공모기간 2023.11.13(월) - 12.13(수)

제출방법 CCPP 홈페이지 접수(ccpp.kr)

시상내역 ▪ CCPP 올해의 작가상 1명 500만원  
▪ 포트폴리오 부문 우수작 2명 각 200만원  
▪ 단사진 부문 우수작 2명 각 100만원  
▪ 청소년 부문 우수작 2명 각 50만원  
▪ 입선작 20여명  
\* 수상작 일부 기획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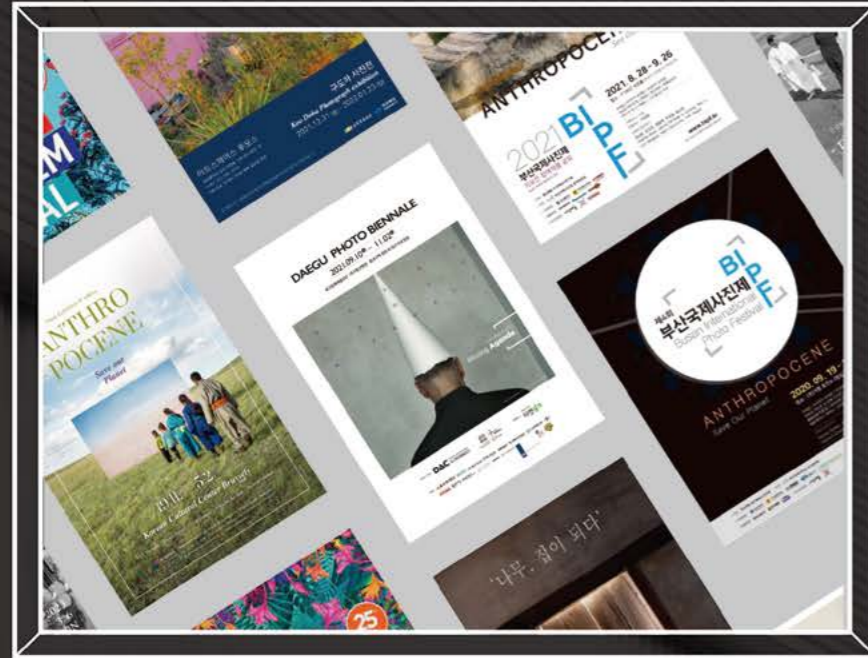
문의처 02-2230-6731



ccpp.kr



# arttre



Arttre collaborates with photographers on photo exhibitions.

아트레는 전시회를 준비하시는 모든 사진 작가님들과 함께합니다.

전시회 사진출력부터 액자까지 한번에 완성맞춤



**아트레**

T\_ 1544-2188  
M\_ 010-3467-3513  
Webhard\_ID\_arttre PW\_8108

**정 덕 원**  
관리이사

1공장 대구시 달서구 성서로 9길 21  
2공장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황병로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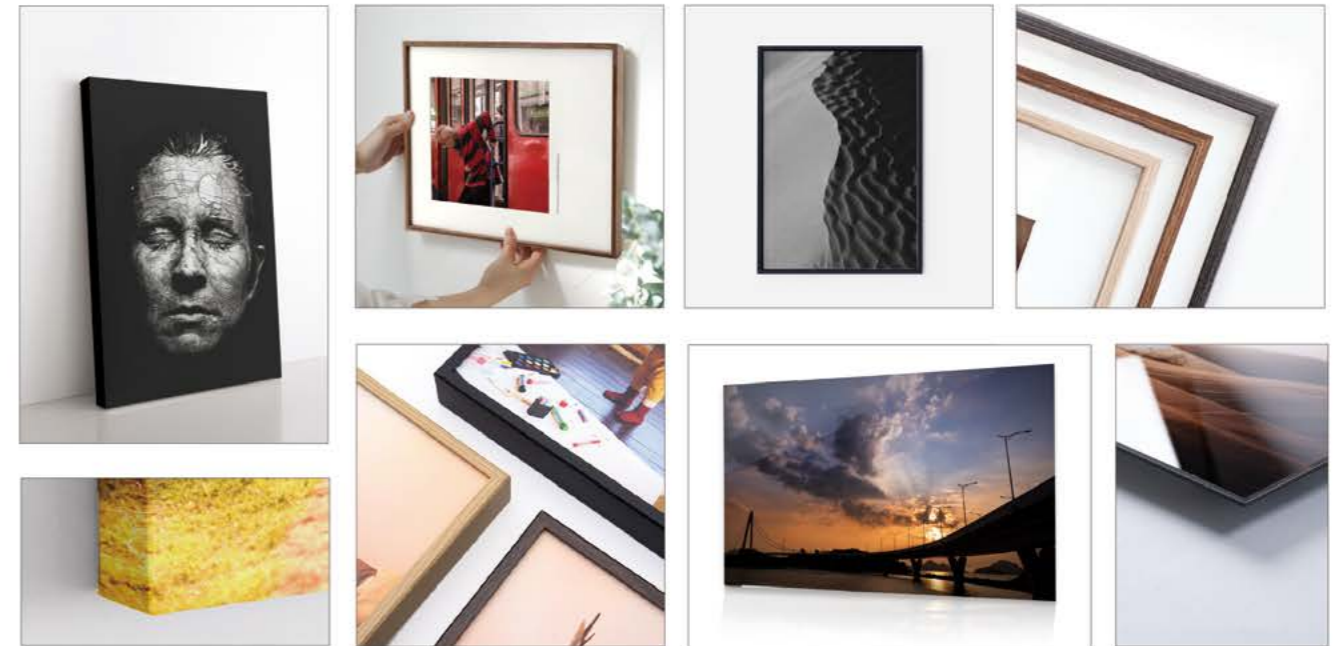
**아트레**



Arttre. No.1 in the industry  
We are with a photographer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시회를 준비(출력,액자)하는 작가님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www.arttre.co.kr](http://www.arttre.co.kr)



관리부

인쇄 / 출력부

액자사업부\_1

액자사업부\_2



액자사업부\_디자인

앨범사업부

검품/포장

노리터보드



# 스튜디오 상업사진만 고수하던 아뜨레가 작가주의 순수 사진가까지...

“프로페셔널 사진스튜디오의 액자와 앨범을 제작해오던 아뜨레가 이젠 전시회도 함께 합니다.”

대구에 본사를 둔 아뜨레는 액자와 디자인 앨범을 중심으로 스튜디오를 위한 각종 사진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EPSON V-7000(UV print)을 도입하여 출력의 범위를 넓혀 다양한 액자 사업에 박차를 가하며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시장 다각화와 각종 전시회까지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Q. 코로나 시국으로 다들 어려워 했는데 어떻게 극복하였나...?**

**A.** 아뜨레는 시장을 주도한 액자 브랜드인 만큼 연간 약 200만개의 액자를 제작 해왔습니다. 코로나로 각 스튜디오들의 주문량이 줄긴 했지만 거래업체 수가 증가하여 실질 주문량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EPSON V-7000 PRINT, VALIANI geminuse 등 일반 업체에서 갖추기 힘든 장비와 시설을 준비하여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신제품으로 앞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시장에 20년간 주문제작을 해 오던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Q. 흔히 봐왔던 액자업체와는 다르게 회사 규모가 굉장히 크던데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A.** 저희 아뜨레는 연면적 4000평으로 관리부, 액자사업부, 앨범사업부, 인쇄/출력부, 국내영업부, 해외영업부 처럼 7개의 부서로 나뉘어져 약 100명의 직원이 각기 전문 분야에서 함께하는 회사입니다. 많은 인력과 체계적인 파트분류로 외주 가공없이 자체적으로 “출력 -> 액자, 앨범제작 -> 출고: 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엡손 V7000 프린트기를 구입하셨는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A.** 액자 제작 업체 중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엡손 V7000은 다양한 소재에도 출력 가능한 프린트기 입니다. 전시회를 하시는 소수분의 작가님들의 니즈에 맞게 다양한 소재에 프린팅과 특별한 기법으로 출력을 할 수 있는 프린트기 입니다.

**Q. 현재, 아뜨레의 스튜디오 앨범, 액자 비중과 전시회 작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게 되나?**

**A.** 예전에는 전체 작업 물량 중 전문 스튜디오업체의 비중이 95% 이상이었으나 요즘은 전시회의 비중이 15% 정도로 차츰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Q. 전시회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최근 전시회 경험담 좀 알려주세요**

**A.** 2002년부터 2023년 까지 일본 ‘포토넥스트’ 행사에 매년 참가하고 있으며 2012 ~ 2020년 PHOTO & IMAGING, 그리고 우리가 제작한 제품으로 2021년 부산 국제 사진전, 2021년 대구 사진 비엔날레, 2023년 부산 국제 사진전의 다양한 개인 사진전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비엔날레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2021년 대구 사진 비엔날레에서 95%의 액자를 아뜨레가 제작을 했습니다.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하나하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 역량을 키워 액자 제작에 좀더 완성도 높은 제품을 생산 할 수 있습니다.

**Q. 아뜨레는 장비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A.** 장비에 대한 투자를 하는 이유는 전시회 고객의 니즈를 생각하다 보면 자꾸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2대의 드림라보, 인디고, 그리고 기존 8대의엡손 잉크젯프린트(Epson Sure Color P20070, P9900, P7000)와 엡손 솔벤프린트(Epson Sure Color S80610), HP 라텍스 프린트기2대가 있지만 캐논 PRO-561를 도입했는데 그 이유는 잉크의 특성과 브랜드 마다 고유의 색감을 원하시는 작가님들이 계셔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자체적으로 다양한 설비를 개발하여 대형 액자를 제작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개발한 설비나 디자인들을 특허 및 액자의 특허 출원이 된 제품이 있습니다.

**Q. 납기일을 정확하게 맞춘다고 소문이 났던데 비결이 있나요..?**

**A.** 아뜨레의 장점은 정확한 납기일 준수 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체 개발한 재단기, 다양한 배접기, 10대이상의 CNC 라우터, 4대의 엷지벤딩기, 4대의 몰딩재단기, CNC 러닝소우, 10대의 Co2 레이저 그리고 파이버레이저 등의 장비로 단시간에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를 이용하여 생산성과 정밀한 완성도의 액자를 단시간에 제작할 수 있습니다.

**Q. 아뜨레 사옥이 대구에 있는데 그로인한 단점은 없는가?**

**A.** 그동안 상업사진을 주로 해오던 웨딩, 베이비, 가족 스튜디오를 거래해오던 입장에서선 택배나 자체 특송 시스템으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전시회 관련 작품을 진행해 보니 작가들과 미팅을 할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각지역을 담당하는 상주직원이 그 지역에서 상담하고, 서울 경기지역은 경기도 화성에 있는 아뜨레 제2공장에 전시 소룸을 만들어 작가님들과 소통도 하며

아뜨레의 액자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도 계획중입니다.

**Q. 올 6월 일본 포토넥스트 행사에도 참여 했다고 들었는데 어떠했나?**

**A.** 일본 고객이라 하면 마감이나 변형에 대하여 상당히 민감한 편입니다. 하지만 저희 아뜨레는 20년 이상 일본에 앨범이나 액자를 수출해오면서 얻은 지식으로 지금은 까다롭기로 소문난 일본인들도 저희 액자 제품을 보고 높은 평가와 함께 많은 업체들과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Q. 아뜨레의 생산품종 올해 추천 및 주력 제품은 무엇인가요...?**

**A.** 기존 스튜디오에서 주력제품은 베젤 액자 인데 전시회 작업을 하다 보니 디아섹 액자가 많이 제작이 됩니다. 그 외 인화 용지에 생생한 색감을 표현하기위해 코팅이나 아크릴 배접이 없이 복판판넬에 사진 프린트만 붙여 제작되는 액자도 인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50가지 이상의 다양한 액자가 있으니 사진이나 전시공간의 상황에 맞게 제작하시면 됩니다.

**Q. 아뜨레 생산 제품 중 전시회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을 소개해달라**

**A.** 저희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것 보다는 작가님들의 사진을 보고 사진과 어울리는 출력재질, 코팅방식, 몰딩 종류 색상을 안내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제품에 자신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아뜨레가 꾸준히 업계를 리드한 이유는 합리적 가격, 뛰어난 품질, 그리고 정확한 납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1997년부터 사진스튜디오를 위한 액자와 앨범을 전문으로 생산해 온 아뜨레는 전문화된 생산라인을 구축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더욱 좋은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2013년 대구 성서 산업단지에 본사를 확장 이전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화성에 제2공장을 오픈하였습니다. 우리의 액자는 가격 대비 뛰어난 품질을 자랑합니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국내 타 액자 업체에서 따라올 수 없는 가성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뜨레만의 강점은 제조공정이 체계적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공정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하고 효율을 극대화시켜 가격과 품질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또한 온라인 주문을함과 동시에 출력, 제작공정, 출고 모든 것을 자체적인 ONE-STOP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뜨레는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더욱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으로 공급하기위해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구촌 청소년 대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Draw your Dream!



©WSB Inc. / Hank Hyungkyu JANG



##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새만금 세계잼버리사진전시회 일정

- 전시기간 2023년 11월 ~ 12월중
- 전시장소 서울 국회의사당, 서울역, 양재동AT센터, 대구역, 부산역, 대전역, 전북도청 1층 로비
- 전시내용 사진작품 100여점 및 영상전시
- 전시주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전북지회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  
The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25th World Scout Jamboree - 2023 SaeManGeum





새만금  
세계잼버리  
사진전시회



“네 꿈을 펼쳐라”  
새만금 잼버리 대회 사진으로 다시본다.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열렸다 이 행사를 위해 본회 전북지회에서 현장을 스케치한 작품을 모아 전시회를 갖는다. 1차 전시회가 부산역에서 11월 6일 열린 후 서울, 대전, 전북 등을 순회하며 모두 7차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다. 전시회 작품을 지면으로 미리본다.







## 새만금 세계잼버리사진전시회

전시기간 2023년 11월 ~ 12월중

전시장소 서울 국회의사당, 서울역, 양재동AT센터,  
대구역, 부산역, 대전역, 전북도청 1층 로비

전시내용 사진작품 100여점 및 영상전시

1차전시	11월 6일(월) ~ 11월 10(금)	장소 : 부산역
2차전시	11월 12일(일) ~ 11월 16일(목)	장소 : 대구역
3차전시	11월 17일(금) ~ 11월 21일(화)	장소 : 국회의사당 3층 로비
4차전시	11월 23일(목) ~ 11월 28일(화)	장소 : 서울역(예정)
5차전시	11월 30일(목) ~ 12월 4일(월)	장소 : 대전역(예정)
6차전시	12월 6일(수) ~ 12월 10일(일)	장소 : 서울 양재동AT센터
7차전시	12월 12일(화) ~ 12월 20일(토)	장소 : 전라북도청 1층 로비







#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 Draw your Dream!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는  
‘Draw your Dream!’이라는 주제로 **디지털잼버리, 평화잼버리, 환경잼버리**로 명명하고 지구촌이 하나되고 대한민국이 함께하는 청소년대축제로 기획하여 **청소년들의 삶에 있어 가장 소중히 기억되는 잼버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 새만금 세계잼버리사진전시회

- 전시기간 2023년 11월 ~ 12월중
- 전시장소 서울 국회의사당, 서울역, 양재동AT센터, 대구역, 부산역, 대전역, 전북도청 1층 로비
- 전시내용 사진작품 100여점 및 영상전시
- 전시주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전북지회

##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주요 행사

구 분	세 부 내 용	
사전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관광) 4박 5일간 서울 포함한 전북 중심 관광</li> <li>• (농촌체험) 2박 3일간 도내 31개 농촌마을 체험</li> </ul>	
환영·환송 리셉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연맹 대표단, 운영본부장, 허브/서브캠프장, 회원국 대표단장, 정부초청 내빈, 스카우트 내빈, 후원기관, 조직위원회 위원 등 대상</li> </ul>	
개영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잼버리’ 시작을 알리는 공식 행사</li> </ul>	
영내·외 과정활동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내) 17개 구역에서 47종의 프로그램 운영</li> <li>• (영외) 도내 14개 시군에서 46개 프로그램 운영</li> </ul>	
서브캠프 활동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브캠프 중심으로 문화교류 및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과 우애 증진, 휴식시간 제공</li> </ul>	
스태프허브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태프들의 일과 후 친교와 문화교류를 위한 공연 프로그램</li> </ul>	
운영요원 대상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요원이 근무 외 시간 및 휴무일에 즐길 수 있는 영·내외 프로그램 운영</li> <li>- 운영요원간 교류 증대 및 개최지역의 문화 체험</li> </ul>	
문화교류	종교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종교별로 운영하는 종교의식행사</li> </ul>
	음식문화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국 간 음식과 놀이문화 교류 행사</li> </ul>
	대공연장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POP과 한국전통문화 중심 공연행사</li> </ul>
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 평화를 주제로 한 170여 개국 대상 포럼</li> </ul>	
폐영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잼버리 종료를 알리는 공식 행사</li> </ul>	
사후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관광) 4박 5일간 서울 포함한 전북 중심 관광</li> <li>• (농촌체험) 2박 3일간 도내 31개 농촌마을 체험</li> </ul>	

##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 LB-H-X2D

핫셀블라드 X2D 전용 L플레이트



**LB-Z9M**

Nikon Z9 전용 L플레이트



**LB-GFX**

FUJIFILM GFX 100S, 50S II  
전용 L플레이트



**LB-R5-UP**

Canon EOS R5 전용 L플레이트



**LB-A7M4S**

SONY α7R V 전용 L플레이트



**판매점**



쉽고 간편한 필터 교체 시스템

## Haida® M10 필터



초광각 렌즈를 위한 렌즈 후면 장착 필터

## Haida® 리어렌즈 필터



자석을 이용해 빠른 장착이 가능한 필터

## Haida® 마그네틱 필터



# 세계최초 신개념 필터 개발 브라이트CPL

세상에 없던 풍경사진 최적화 자석 필터

일반 CPL

브라이트 CPL



RED+GREEN  
채도를 더높게

일반CPL보다  
쉬운 난반사제거

QB280야경필터  
광학유리 베이스

프로그램이 필요  
없는 보정효과

## 아직도 무거운 삼각대만 들고 다니시나요?

삼각대 리뷰전문작가 15명이 극찬한 제품  
2023년 벤로 여행용 삼각대 판매율 1위

### 벤로 사이언버드 삼각대

깃털처럼 가볍지만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

**1.08** kg  
헤드포함 무게

벤로코리아만의 특별한  
기술력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페이로드  
4.0kg

접은길이  
46cm

최대높이  
155cm

최소높이  
17.7cm





NEW SHIMODA BACKPACK

# ACTION X v2

새로워진 액션 v2 X 백팩 초경량 / 고성능 / 대용량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춘 포토그래퍼, 영상 작가를 위한 백팩

NEW



All SEASONS RESORT

MONA YONG PYONG

제휴사 특가 상품 안내



유효기간 : ~2023.11.30 (객실 기준)

## 패키지 구성

객실	+	조식뷔페 (하반)	+	발왕산 케이블카 스카이워크	+	워터파크 오후권 또는 애니포레
<b>BIG 9 할인권</b>						
케이블카 40%, 워터파크 40%, 공룡해양랜드 20%, 컬러랜드 20%, 루지 1회권 20%, 마운틴코스터 20%, 덩다이브 15%, 모나베이커리 10%, 더살레 10%						



예약사이트 바로가기

2인 PKG	정상가 508,000원	<b>119,000원</b>	76%
3인 PKG	정상가 592,000원	<b>159,000원</b>	73%
4인 PKG	정상가 676,000원	<b>199,000원</b>	70%

### 이용안내

1. 제휴사링크 접속 <https://weare.pscms.co.kr/staff/mona/product>
2. 제휴사 ID, 인증번호 입력 ( ID : YP28 / 인증번호 : 1190519 )
3. 상품 결제하기
4. 구매 후 문자(카카오톡)수령, 카카오톡 내 URL 예약 링크 접속  
\*2달 이내 날짜만 예약 선택 가능
5. 객실 예약하기 클릭 후 이용일 / 객실 선택
6. 예약 확정 번호 문자 수신
7. 해당일에 프런트 방문 후 이용

**패키지 구매**

용평리조트 제휴사

제휴사ID YP00

제휴사 인증번호 00000000

구매자 이름

구매자 전화번호

결제방식 신용카드

선택한 티켓을 구매 하시겠습니까?

### 환불 및 안내사항

1. 구매 후 미사용시 유효기간 내 취소신청 시 100% 환불 가능합니다.
2. 상품 환불 및 취소는 고객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고객센터 02.6925-3193 / 운영시간 : 월~금 09:00 ~ 17:00(점심시간 12:00~13:00)
3. 해당 판매가는 호텔 디럭스, 타워콘도 18타입 기준 요금이며, 객실 증평 및 주말은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추가 요금은 체크인 시 프런트에서 결제 해주시면 됩니다.



H&Y



QR 코드 스캔하고  
제품 정보 확인하기



장노출 사진을 위한 최고의 선택, H&Y 마그네틱 ND 필터!

**HD MRC IR ND8/64/1000/500000/1000000**

KPP 코리아포토프로덕츠  
KOREA PHOTO PRODUCTS

주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52 신한빌딩 6층 | 전화 02-455-6775 | 홈페이지 <https://kppkpp.co.kr>

Leofoto®



QR 코드 스캔하고  
제품 정보 확인하기



## 부식 방지, 방수 방진 삼각대 포세이돈 & 아테나

*Titanium*  
Nemesis of sea water corrosion



부식 방지 기능의 티타늄 재질 스파이크, 고무발 나사, 튜브

*Maintenance free system*  
Water and sand proof feature



방수&방진 기능으로 물, 모래, 먼지 유입 최소화



방수 잠금 장치

일반 잠금 장치

KPP 코리아포토프로덕츠  
KOREA PHOTO PRODUCTS

주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52 신한빌딩 6층 | 전화 02-455-6775 | 홈페이지 <https://kppkpp.co.kr>



# 대한민국 사진축전

-지회·지부 회원전 및  
사진작품전 대행  
출력, 접수, 액자제작까지

## Artluxe® 총판

아트룩스는 첨단 소재 기업 존스미디어(주)의  
고품격 디지털 프린팅 솔루션으로 구성된  
혁신적이고 고급스러운 기능으로  
더욱 우아하고 다양하게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토탈 프리미엄 (실내,실외) 자외선/습기에 강한  
갤러리 전시액자, 사진출력 및 광고 포토패널 시스템입니다.



### 출력 전시계획-

### 아트룩스™



Artluxe® CRYSTAL CLASSE 크리스탈클래스  
고광택을 유지하면서 조명반사를 줄여  
작품의 선명함을 한층 높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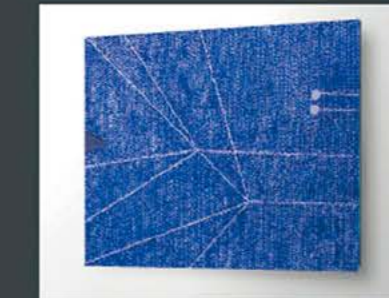
Artluxe® CRYSTAL ART 크리스탈아트  
아크릴보다 진한 고광택으로  
작품의 선명함을 한층 높입니다.



Artluxe® CHROME 크롬  
실버색상의 메탈릭한 느낌으로  
작품에 차원이 다른 표현이 가능합니다.



Artluxe® SUREVUE 시어뷰  
광택과 조명반사를 없애고  
작품의 선명도와 집중도를 높여  
품격있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Artluxe® CANVAS 캔버스  
유화그림 같은 느낌으로  
작품의 선명함을 한층 높입니다.



Artluxe® PEBRICK 페브리크  
모래알같은 잔잔한 표면으로 작품에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 한사전, 시도전, 사진축전, 갤러리, 야외전시작품 제작 대행 예약받습니다 -

\* 작품 보정작업도 가능합니다. 파일전송(이메일) : [bebe9006@naver.com](mailto:bebe9006@naver.com) \*

**Artluxe®**  
프리미엄 포토패널 총판

Tel : 02-2653-9007

Mobile : 010-4610-9007

[ 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www.pask.net](http://www.pask.net) 배너광고, 월간 한국사진 광고 중 ]

**FEEL YOUR SPACE**  
TOTAL PREMIUM PHOTO PANEL SYSTEM



# 1만명 전문사진가의 선택! 사진전시 실적 업계1위 두진아트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전 동호회 그룹전 개인전 사진인화&액자제작 납품실적 업계1위

사진작가 전용 전시액자 쇼핑몰 **NAVER** 두진아트

캔버스랩/아트랩 띄움원목액자(띄움원목액자는 아트랩 과 분리 재사용) 개인전 프리미엄 최고급 액자



캔버스랩&아트랩 원목띄움액자 / 뒷면(후면) 모습



캔버스랩&아트랩과 원목띄움 액자 교체모습



무반사 아크릴 디아섹 (독일제 무반사 아크릴 사용)



고광택 아크릴 디아섹 (국내산 정품 아크릴 사용)



보급형 중저가 (45,000원대) 아크릴디아섹(국내산 정품) 구비되어 있습니다. \*저가 중국산 품질주의 경보발령\*

캔버스랩/아트랩 띄움액자(띄움액자는 아트랩 과 분리 재사용) 개인전 회원전 그룹전 작품액자



아트랩 띄움액자 컬러 (우드,진밤,흰색,검정)



아트랩과 띄움액자 교체 분리 재사용



아트랩 띄움액자 뒷면



2022 제7회 대한민국 사진축전 업체부 스 두진아트에서 최고품질의 최신 트렌드의 작품 인화와 액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물머리 황금빛 내림  
長川 김기현 작

**이것이 진정한 아트다!**

궁극의 사진표현력, 미세한 디테일까지...

“실제보다 더 실제같은 입체감과 질감”  
지클리 프린팅 부드러운 색상의 재현  
아트페블릭 인화 지금 경험해 보세요.

캔버스랩 & 아트랩



좌측 아트랩 뒷면 마감/우측 아트랩 옆면 흰색 마감 이미지연장 선택



흰색 마감  
이미지연장

뷰라트 아트페블릭



좌측 뷰라트 뒷면 마감/우측 뷰라트 앞면과 옆면 마감





# 신탁등재는 내 사진저작물 보호의 시작입니다.

## 신탁자 등재 절차에 따라 등록이 가능!

본 협회는 2022년 11월 부터 2022 미분배보상금사업 공모 수행 사업자 선정에 따라 본 협회 회원들은 관련하여 사업 안내를 지속적으로 진행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2023년 6월까지 진행됩니다.  
아래와 같이 신탁등재 안내를 드리오니 순서에 따라 등재는 사진저작물 권리침해 방지 및 저작물 보호의 시작입니다. 많은 회원님들이 사진저작권자 신탁등재 등록에 동참 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저작권 신탁등재 전산화 등록방법



- 1** 사진저작권자 신탁등재 전산프로그램 직접 등록절차 01
- : 본 협회 홈페이지 접속
  - : 로그인 창에 회원번호, 비밀번호 로그인 실행
  - : 하단 사진저작권자 신탁등록 배너광고 클릭

- 2** 사진저작권자 신탁등재 전산프로그램 직접 등록절차 02
- :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KOLAA 이미지뱅크 신탁등록 이동
  - : 신탁등재 개인정보 및 약관 숙지 요망
  - : 최종 이용약관 동의 체크 후 오른쪽 확인 키 클릭

**3**

아이디(*)	5자 이상 20자 이하, 대소문자, 숫자	①
비밀번호(*)	5자 이상 20자 이하,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②
비밀번호(*) 재확인	5자 이상 20자 이하,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③
직가명(*)		④
직가명(영문)		⑤
필명		⑥
소속단체 (단체내 번호)	한국사진작가협회 1555	⑦
저작권자(여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저작권자 본인	⑧
이메일(*)	0000@00000000-0000	⑨
생년월일(*)	예)19901201	⑩
휴대전화(*)	예)0112345678	⑪

사진저작권자 신탁등재 전산프로그램 직접 등록절차 03

- : ①~⑤ 순번 대로 필수 입력사항, 단 ⑥번 필명은 선택사항
- : ⑦번 소속단체는 고정 값
- : ⑧~⑩번 입력 진행,
- : ⑪번은 전화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클릭 필수

**4**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①
주소(*)	우편번호	<input checked="" type="button" value="주소검색"/>	②
주소상세(*)	주소	상세주소	③
계좌정보	계좌은행명	계좌예금주	④

사진저작권자 신탁등재 전산프로그램 직접 등록절차 04

- : ①번 해당 주민등록번호 입력
- : ②번 주소검색 클릭 후 주소팝업 검색창에 주소 입력 후 해당주소 클릭
- : ③~④번 순서대로 입력 진행

**5**

계좌번호	계좌번호	①
통장사본	<input type="button" value="찾아보기"/>	②
신분증 사본	<input type="button" value="찾아보기"/>	③
프로필	250자 이내	④
	<input checked="" type="button" value="가입하기"/>	⑤

사진저작권자 신탁등재 전산프로그램 직접 등록절차 05

- : ①번 계좌번호 입력
- : ②~③번 해당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이미지 데이터 첨부
- : ④번 250자 이내의 개인 프로필 입력, 약력사항 위주
- : ⑤번 모든 입력사항 완료 후 가입하기 클릭

※ 신탁등재 전산 회원가입이 완료 후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신탁등재 담당자의 등록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 최종 등록승인 절차 완료 통지 후 코리아 이미지(www.korramimage.com)로 접속 로그인 후 사진저작물등록이 가능합니다.

- [작가] 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저작권자 등록 신탁등재 페이지에서 개인정보 필수 기입 사항 입력 후 가입신청
- [관리자] 신청확인 후 가입정보 토대로 입회신청서 및 저작권위탁 신청서 각 1부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발송 (메일 미확인 시 작가분 연락처로 문자안내 및 유선 안내 드립니다.)
- [작가] 각 신청서 검토 후 서명날인하여 관리자에게 회신
- [관리자] 확인 후 정회원 승인 (확인문의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신탁등재 담당자 070-4265-1500)
- [작가] 코리아 이미지 사이트(www.korramimage.com) 저작물 등록 가능(최대 5개) 이후 추가 등록물은 본 협회 사진저작권 담당자에게 전달 또는 문의요망 (02-2655-3131)



표지투고11월

# 월간 한국사진 표지 투고작을 모집합니다!

월간 한국사진 표지는 우리 협회의 얼굴입니다.

이에 표지투고 선정작 작가에게 더 많은 자부심과 혜택을 드리고자  
표지 선정작가에게 30만원 사진창작활동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단, 선정작가에게 책자는 5부만을 배부됩니다. 추가 구매 가능합니다.)  
구상, 비구상 뿐만 아니라 현대사진 패러다임의 사진작품이 게재되어  
월간 한국사진이 진정 대한민국 대표 사진전문 잡지로  
사진예술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월간 한국사진 표지투고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도전을 기다리겠습니다.

## · 표지 작품성 강화를 위한 개선된 표지투고 선정 방식

1. 표지 작품성 강화를 위해 본 협회 회원이면 참여가능 / 2. 표지가 세로도판인 관계로 세로형 작품 및 작가노트 충실 요망
  3. 투고작 심의 - 이사위원회 출판팀 심의 선정
- ※ 단, 최종 선정된 표지 원고는 월간지 작업시 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형이 될 수 있음. (작품원본 변형을 원치 않을 시 투고 고려요망)
- ※ 단, 촬영데이터 (Capture Date & Time, Exposure Data S/F Camera, Lens, 장소, Focal Length, Filter, White Balans Temp, Develop Data, Merge(합성) 내용, Panorama, Bracketing(HDR,WB Focus), Interval, Time lapse, Inverted(반전), Tilting, Zooming, Panning, 장노출 등 모든 촬영기법 및 현상기법과 내용을 표지투고시 공개해야 함. 선정작에 한해서만 상세사항은 기재되며 미선정작은 공개되지 않음.

## · 월간 한국사진 표지원고 투고 방법

웹하드(www.webhard.co.kr) - 아이디 kpask / 비밀번호 kpask 접속 후 → 올리기 전용 - 월간 한국사진 표지투고 → 투고자 성명 폴더 생성 후  
작품2점 + 작품명, 작가노트, 촬영데이터 및 이력사항(연락처) 업로딩 요망 ※ 월간 한국사진 표지투고 마감일 전월 20일 마감입니다.





우리나라의 등대는 몇 개나 될까?  
 여행을 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나 사진으로 전시를 하면 어떨까 생각하게 되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촬영할 수 있는 등대의 매력을 찾아 떠난다.



©김남규\_표선민속해안로 등대



©김남규\_난드르 등대

# “바다, 섬, 등대, 그리고 시간의 흐름”

김남규(제주)

전시일시 2023년 11월 25일(토) ~ 11월 30일(목)  
 전시장소 제주도 문예회관 제2전시실  
 전시작가 抱然(포연) 김남규





©김남규\_귀덕포구갈매기와 등대

항구, 해변의 방파제, 외딴섬, 암초 등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자리에 서서 드넓은 바다와 뱃길을 밝혀주며, 배들에겐 생명의 빛과 같은 등대, 아름다운 바다에 외로이 서있는 등대는 인간의 삶의 애환을 담고 있어서인가 애잔한 느낌마저 든다. 사람과 공존하고 있는 등대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도 함축하고 있어 영원히 지켜야 할 유산임을 생각하게 한다.

야심한 밤에도 파도가 바위에 부딪치는 소리를 들으며 우두커니 서 있는 등대!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어야 볼 수 있는 크고 작은 환상의 등대섬!  
외로움과 자존심의 표상이자 그 자체로 멋진 풍경이 되어준 등대사진!  
나와 닮은 등대를 찾아 새로운 사진 인생의 그 길을 떠나려 한다.



©김남규\_신창풍차해안 등대



©김남규\_신촌포구



©김남규\_이호해변 등대



©김남규\_추자도문여 등대





# Challenge : Aurora

김민주(구미)

전시일시 2023년 12월 6일(수) ~ 12월 11일(월) (전시관람 AM10:30 ~ PM06:30)

전시장소 인사동 마루아트센터 신관1층 (www.maruartcenter.co.kr)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35-4, 35-6) Tel. 02-2223-2533

전시작가 김민주(구미지부)  
인스타그램(kimmj\_photos, 010-3337-0764)

해야 할 일의 방향(존재의 진리)을 명확히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삶에 가장 두려운 건, 아니몰라(영혼) 없는 방향을 간다는 사실이다. 아이들의 엄마와 아내로 살아오면서, 나의 모든 삶을 윤택하게 만들 근원에 갈망했다.

그러나 가정이라는 위계의 범주에서 머물러 있었던 나를 발견했다. 하지만 이것을 분리 재배치하여 예전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사진가의 삶과 더하여 또 다른 삶을 추구했을 때, 일련의 삶에서 고립감과 나란 자기 존재에 무가치성을 해체시킨 '오로라'의 물성(物性)으로 탄생했다.

즉 '오로라'는 '노에마(Noema, 관념적)의 상징(표상, 심볼) 대상체(오브제, 사물)이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에 나의 미세한 감각, 감정과 세심함을 두었으며, 내재된 나의 고유한 말(진리)이 작동하는 작품으로 담았다.





외계에서 고립된 지구로 보내는 메시지일까?  
 밤하늘 어둔 화면을 신비로운 빛으로 채색하는 장면은 보는 이들에게 우주와 소통하는 특별한 감정을 선물한다.  
 그 심오한 메시지를 작가만의 언어로 해석하는 기쁨이 있기에 춤추는 오로라 빛의 향연을 찾아 셔터를 누른다.



©김민주\_오로라 #2 pigment print 110x62cm



©김민주\_오로라 #99 pigment print 110x62cm





# 사각 프레임으로 보는 하얀세상

문인호(대구)

전시일시 2023년 12월 5일(화) ~ 12월 10일(일)

전시장소 대구문화예술회관 4전시실

전시작가 문인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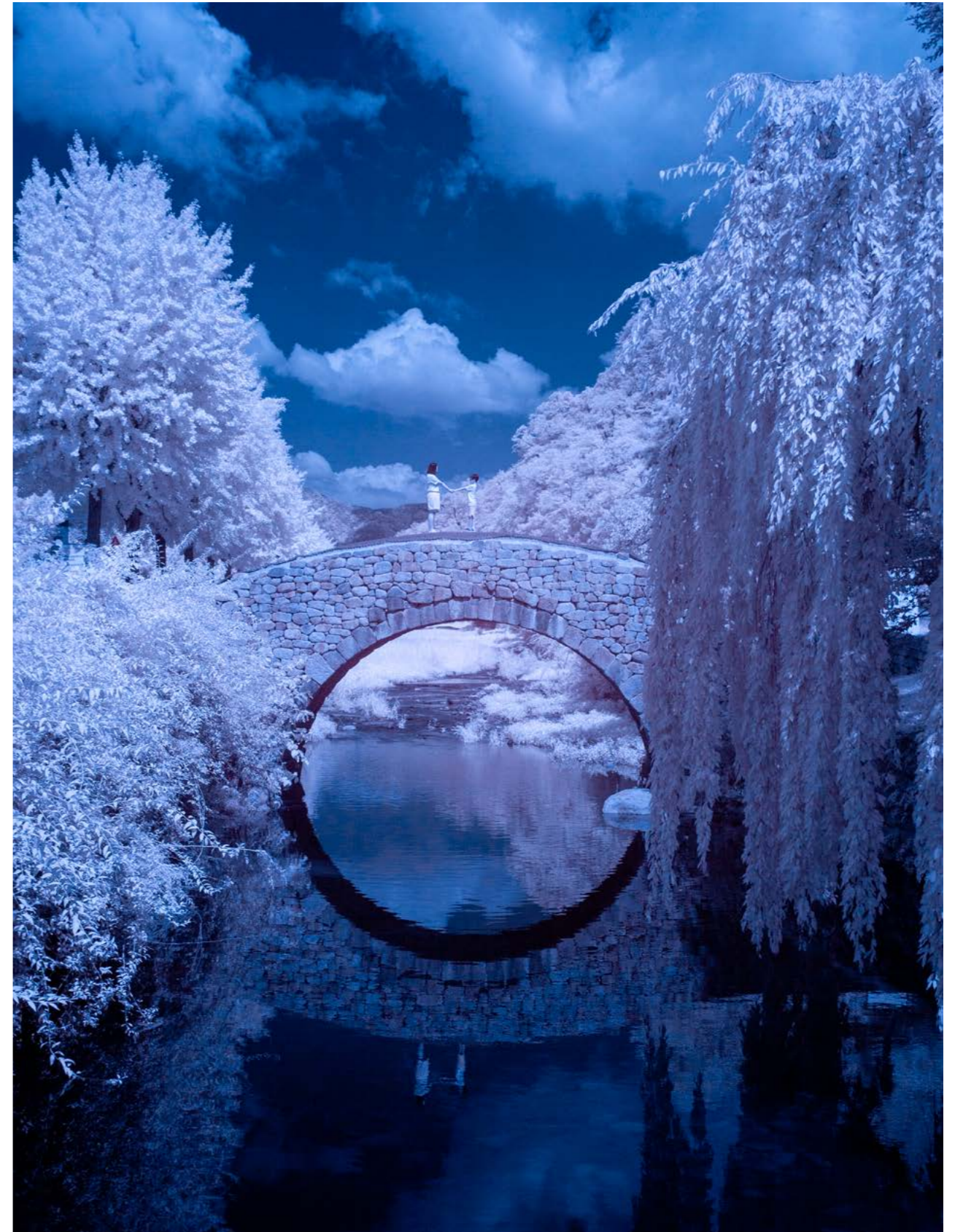


©문인호

마치 눈이라도 내린 것인 양 사각 프레임 잡힌 세상이 은빛으로 표현되어 있다.  
컬러의 세계는 더 완벽한 것 같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실체가 아닌 꾸며낸 허상일 수 있다.

적외선이 표현한 꾸밈없는 사물과 세계는 오히려 본질에 가깝다.

사진이 진실을 추구하는 예술이기에 나는 내 주변의 세상을 실제적 진실로 바라보고자 사진작업을 해 왔다.



©문인호





©문인호



©문인호

내 안에 너 있다.

본다고 다 보이 보이는 것은 아니다.  
보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의 풍경들  
그 피사체를 담은 행위자체가  
나 스스로를 치유함이다.

힘든 삶의 무게를  
산과 들을 하얀 세상으로 채웠다.  
본다고 보이지 않는 나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자연 앞에 나 자신은 초라해진다.  
사계절 힘든 환경을 견뎌내고  
아무것도 해준 것 없는 내게  
지금의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주는 그 모습

햇빛 짙한 날 대자연 속에는 늘 내가 있다.  
그 하얀 세상을 담고 싶은 작은 카메라와 함께  
자연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고 간직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  
나는 자연을 남다른 예술로 표현하고 싶었다.  
적의선으로 보는 하얀 세상을



©문인호



©문인호





# 새들의 날갯짓 속에 시간 멈춘 DMZ 천상의 메신저 두루미 떼 내려 앉는다

김효경(안산)

하늘을 무리 지어 나는 두루미의 날갯짓은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한 폭의 풍경이다.  
흰 구름 펼쳐진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새 떼의 우아한 몸짓은 천상의 세계를 열어준다.  
나는 잠시 카메라 앵글을 열어 놓고, 그 고요하고 아득한 세계를 끝없이 유명하다 돌아오곤 한다.



두루미 떼가 바람을 타고 하늘을 가득 채우면, 천상의 새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그리고 곧 홀로 서 있던 나무가 배경이 되어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든다. 그들의 날갯짓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흐름과 우아함을 지니고 있다. 물아일체物我一體가 된 나는, 누르던 셔터를 멈추고, 그들의 날갯짓 속에 멈춘 시간을 가슴으로 담는다. 실로 경이로운 순간이다.

새들은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한 줄로 날거나 V자로 난다. 앞의 새가 역류를 이용해서 날면 뒤의 새는 그 대류를 따라 에너지를 비축해 날다가 자리를 바꿔가며 서로 협동하며 난다. 두루미는 무리를 지어 하늘을 날고, 무리 지어 먹이를 먹고, 잠을 잔다. 잠을 잘 때도 몇 마리는 잠을 자지 않고 보초를 서며, 몸의 열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붙어 잔다. 참으로 배울 것이 많은 새다. 이렇게 서로 화합하며 살아가는 동물은 지구상에 몇 안 되는 종이다.



©김효경\_여백을 담다 2



©김효경\_새들의 날갯짓 2



©김효경\_해질녘 섬을 찾아



©김효경\_잘 곳을 찾아가는 기러기 떼

영화의 추운 날씨에 몇 겹의 옷을 끼어 입고 핫팩을 몸과 카메라에 붙이고 무거운 카메라를 메고 새벽길을 나선다. 천적과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먼 강줄기에서 잠을 청한 두루미는 동이 뜨기 전,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 물 위를 박차고 난다. 새벽을 가르며 날아가는 새들의 군무는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동의 물결이다. 이런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내 카메라는 찻각찰각 숨도 쉬지 않고 순간을 담아낸다.

남과 북을 품은 비무장지대 이곳, 분단의 아픔을 잊은 채 새들은 자유로이 날아다니고, 은빛 물결만 처연하게 흐른다. 제한된 DMZ(비무장지대) 이라 이곳에서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된다. 이곳으로 이 끌어주신 임양록 작가님께 지면을 통해 감사 말씀을 전한다.

하루도 똑같은 풍경은 없다. 우리는 자연과 함께 매일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뷰파인더 안에 들어온 풍경이 그렇다. 뷰파인더를 통해서 보는 세상은 또 다른 세계를 연출해 준다. 자연과 함께하는 삶은 송고하고 더불어 아름답다. 지상의 무게를 향해 내려앉은 흰 눈이 새 떼의 울음을 안고 저물고 있다. 나는 오늘도 카메라를 열어 놓고, 그 풍경 안에서 잠시 쉬어갈 꿈을 꾀본다.





폭풍한설 속에서도 늘 푸르리라  
노송의 향기  
이상선(전주)



©이상선\_순간포착-부전동



©이상선\_하동송림 천연기념물

기나긴 세월 혹독한 환경을 이겨내고 푸르름을 지켜왔다.  
비록 몸은 굽어도 그 정신이 올곧게 긴긴세월 변함이 없어 세상 사람들의 찬송을 받는다.  
사나운 바람도 차가운 눈보라도 강한 생명력 앞에 무릎꿇고 강인한 기상만 우뚝하다.



©이상선\_상현리 천연기념물





©이상선 화양리 천연기념물



©이상선\_설경-삼능

뺨속까지 스며드는 냉기 속의 '비박' 차에 깔리려는 순간 외치는 '비켜'. 네 끼니 굶고 말은 라면의 '위력' 등은 나의 사진생과 관련된 잊을 수 없는 단어들이다.

요리보고 저리 보고 또 비켜 보고 보면 볼수록 나의 발길을 잡는다. 목피는 불규칙함에 조화로 지루함이 없다. 곰음은 균형이 있고 곡에서는 유연성으로 부드러움을 더한다. 송순에는 생명이 흐르는 높고 낮음의 가락이 있고 백고에는 세월의 흔적인 훈장이 우리네 삶과 같다. 성산을 지키는 노송은 쓸모가 없어서 살아 남아 오늘날 찬사를 받고, 위엄과 위압감을 준 당산목은 동네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다.

비상등을 켜고 달리는 안갯길은 암흑 속 두려움이고 눈 올 때는 추위와 굶주림 공포감으로 낭만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 때로는 청소부 또는 민원인이 되기도 한다. 수십 번 공들여 촬영과 교정을 한다. "천연기념물"이라는 훈장을 단 노송은 관리가 잘 되어 있으나 "보호수"란 명찰을 단 노송은 관리 소홀이다.

나에 사진 생활은 산 사진, 노송, 연화, 조류 등이 모두 즐겁고 보람이 있다. 비박, 비켜, 위력 등이 함께 했던 그분들과 추억을 간직하고 고마움을 전한다. 차 조심이라는 말과 손 흔들어준 김 여사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이상선\_순간포착-대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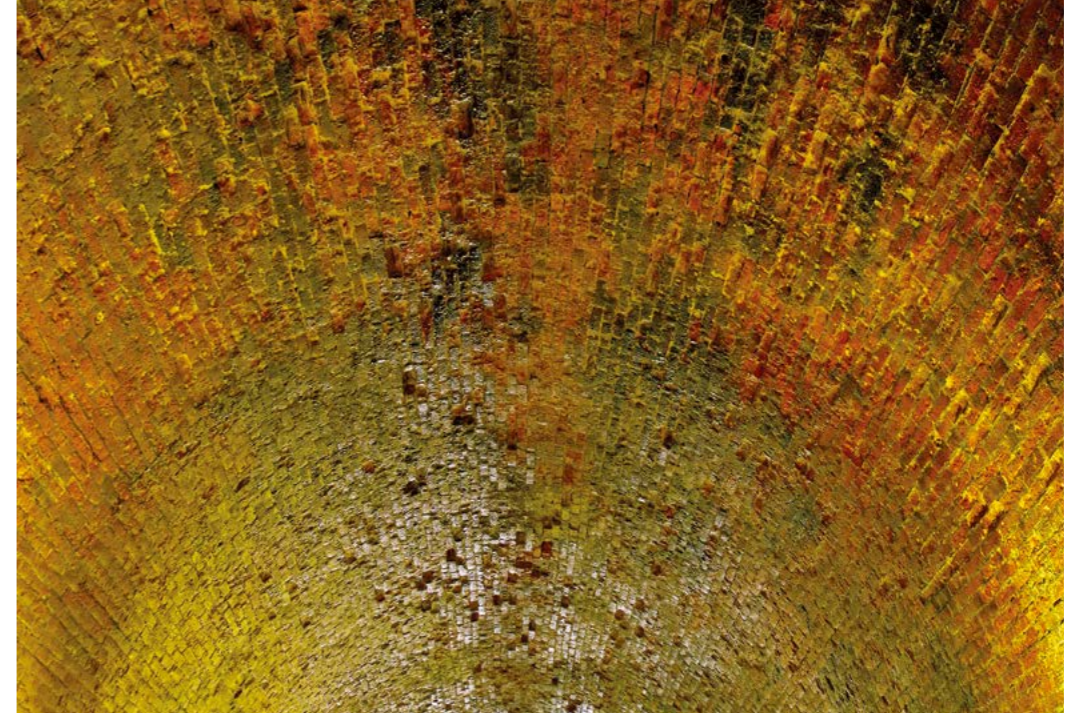


# '포도 대신 감' 누천년 아성에 도전한다 청도 와인 터널

윤석순(제주)



©윤석순



©윤석순



©윤석순

1905년 개통한 경부선 열차 터널이 청도를 지난다. 이 터널이 감 와인 숙성고로 사용되고 있다. 인류 역사 수천년동안 포도주를 만들 때 쓰이던 포도를 청도에서는 감을 원료로 삼아 와인을 제조하기 때문이다. 2003년 생산되어 국내외 주요 행사에 건배주로 사용된 감 와인, 그 숙성고를 촬영했다.





©윤석순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하니 웃짓을 여미게 한다.  
 날씨만큼 내 마음도 허해짐을 느끼며...  
 마음을 달래보고자 정처 없이 도착한 곳은 청도 와인터널이었다.  
 감나무 가지에 무게를 가누지 못할 만큼 풍년일 거란 생각은 보기 좋게  
 빛나갔다. 단풍도 빨간 홍시도 내 마음을 채워주진 못했다. 집 앞 가로수  
 처럼 단풍도 원색에서 벗어났고 이곳 홍시 또한 등성등성 열려서 풍년  
 하고는 거리감이 있다.

“신의 물방울” “생물의 물”이라고 불리는 와인은 현재 50여 개국에서 연  
 간 250억 병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감와인은 2003년 세계 최초로 청



©윤석순

도감와인(주)에서 개발되어 국내외 주요 행사에 건배주로 선정되어 포  
 도 와인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고 있다. 120년 된 이 터널  
 은 15℃와 60~70% 습도가 와인 숙성의 천혜 조건을 갖춘 곳이며 연간  
 100만여 내외국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 관광지이기도 하다.

1905년에 개통된 옛 경부선 열차터널로 높은 산중턱에 건설되어 기관  
 차 2량이 앞뒤로 끌고 밀면서 힘겹게 운행하다 1937년 폐쇄되었다. 지  
 금도 천정벽돌에는 그늘음으로 세월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6.25 사  
 변 때는 각종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1960년대 말  
 까지도 버스가 다니는 국도로서의 중추적인 기능도 담당했었다. 경부

선 개통 초기 서울~부산 간 열차요금 80kg  
 쌀172 가마니 값이었고 지금환산해 보니 3  
 백 4십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열차요금이었음  
 도 알게 되었다. 이 터널은 토목건축공학적인  
 구축물로서도 미적가치가 돋보이며 터널공사  
 용 자재를 운반하기 위하여 임시로 부설한 선  
 로의 흔적과 급경사 극복을 위한 철도기술인  
 swich-back선로 등이 아직도 남아있어 철도  
 기술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천정벽돌은 그 자체가 진정 예술작품이다.  
 1904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후 러시  
 아 시베리아에서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것으  
 로 알려져 있고 벽돌 표면에 검은색 그늘음은  
 32년간 운행했던 증기 기관차의 지울 수 없는  
 흔적이다. 이 벽돌은 3겹으로 정교하고 튼튼하  
 게 조적되어 120년이 지난 지금도 천정을 아  
 림답게 수놓아 반영구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건축 전문가들은 판정하고 있다.

이런 예술적 가치가 큰 터널이 감 숙성고로 활  
 용됨은 무척이나 고무적이다.  
 특히 이 벽돌에서는 정신을 맑게 하고 혈액순  
 환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음이온이 다량으로  
 방출되어 와인을 숙성시키는 꼭 필요한 존재  
 다. 120여 년 전의 노동력으로 건설된 터널이  
 현대인의 숙적인 정신건강과 혈액순환에 도움  
 을 준다 하니 온고지신의 의미를 되새겨보며  
 천정벽돌은 건설장비도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5m도 넘는 높은 곳을 바둑판 알처럼 빼곡히 3  
 겹으로 작업하신 우리 선조들의 노고에 고개  
 가 절로 숙여진다. 보이는 화려함 잡히는 풍성  
 함은 없지만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감  
 하나 만으로도 힘을 느끼기에 돌아오는 발걸  
 음은 가볍고 뿌듯함을 감출 수 없다.

가까운 시간에 좋은 사람과 좋은 곳에서 와인  
 에 빠져들 것 같다.



©윤석순







재개발 뒤편길서 발견한 사람과 풍경

# 모종동 아카이브

## 김인숙(아산)



©김인숙



©김인숙

옛것은 쇠하고 사라지고 그 자리를 새로운 것이 채운다.  
그러나 옛것이 그림고 아쉬운 것은 그것들에 지나간 삶이 오롯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익숙했던 일상들이 이제는 박물관에서 보는 전시품처럼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사진 속에서 발견하는  
그 때 그 사람들과 동네 뒷골목의 풍경들이 잊혀진 옛 기억을 되돌려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흑백텔레비전 시절 미군 부대에 근무하시던 아버지는 신기한 물건들을 한 번씩 가져오시곤 했다. 딱딱하고 동그란 하드 지에 칼라 필름이 360도로 있었고 망원경처럼 생긴 물건 중앙에 하든지를 꽂고 버튼을 딸깍딸깍 누르면 전 세계 유명 관광지 컬러사진이 손에 잡힐 듯 선명하게 보이곤 했다. 후에 알고 보니 3D 뷰 마스터였다. 딸깍딸깍~ 소리와 함께 그 사진 속으로 빠져들곤 했다.  
불혹의 나이에 카메라 렌즈로 바라보는 세상은 셔터 소리가 나는 순간 나를 호기심 많은 어린 시절로 돌려놓는 듯하다. 자연스레 2015년 한국사진작가협회에 입회하게 되었다. 사진 촬영에 좀 더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다.

김인숙의 '동네 한 바퀴'가 시작되었다. 막연하게 특별한 날 특별한 곳을 가지 않아도 평범한 일상을 사진으로 톡톡 담고 싶단 생각에 후엔 카메라도 라이카-Q를 구매하면서 28밀리 카메라를 휴대하고 다니게 되었다.

2016년에 사진 모임에서 아산시 모종동 재개발 지역을 처음으로 아카이빙하기 시작했다. 모종동 마을 입구에 '사거리 슈퍼'에 서면 골목 골목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두런두런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계셔서 동네에 들어서면 그날그날의 마을 뉴스거리를 미리 듣곤 했다. 삼각대를 세우고 있으면 지나가던 동네 분들이 측량을 나왔냐며, 재개





©김인숙



©김인숙



©김인숙

발 이야기를 꺼내시며 이곳을 떠나야 하는 아쉬움을 한창 이야기하시곤 했다. 신축된 아파트는 그때의 기억을 다 묻어 버리려는 듯 우뚝 서 있지만, 이곳을 지날 때마다 그때의 경험을 떠올리며 급변하는 이 도시를 하나라도 더 담아내고 추억을 공유하고 싶단 생각이 든다. 경주시, 공주시, 여주시, 태백시, 청주시 등을 아카이브 해보니 다시금 내 지역에 애항심을 가지고 좀 더 진지한 태도로 담아 기록으로 남겨 보고자 하는 포부가 생겼다. '축소도시 프로젝트'와 청주에서 '도시지역 아카이브' 활동 경험을 확장해 올봄 '모멘트'라는 아산 사진 아카이브 단체도 만들어 같은 생각 품은 사진가들과 '도고온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그러다 보니 미학적 기록이 예술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사진적 아쉬움도 지금의 활동력에 좀 더 자극을 가져다주길 기대하며 2016년부터 차근차근 모아 온 아산시 사진을 하나씩 꺼내어 정리 전시 출판을 준비해 본다.



©김인숙



©김인숙



©김인숙



# 대구사진비엔날레 다시, 사진으로!, 사진의 영원한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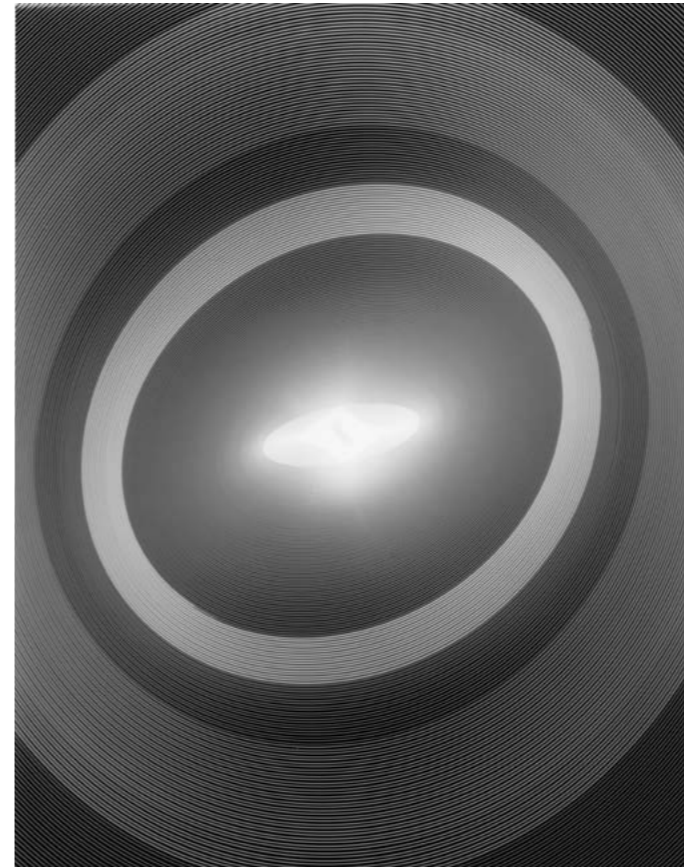
글 사진제공-김재훈(전시 컨설턴트, 프린트 디렉터)

2006년부터 시작되어 세계 사진예술의 흐름을 보여주는 대형 사진 축제로 자리잡은 대구사진비엔날레가 지난 9월 22일에 9회째의 막을 열었다. <다시, 사진으로!, 사진의 영원한 힘>이라는 주제에서 느껴지듯 '사진의 힘'이라는 대주제 아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시대 최신 작품들을 집대성해 사진의 여러 가지 힘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회 정치, 환경, 기후, 소수자, 재난, 공존 등 비엔날레들에서 반복되는 주제인 유행하는 담론들에서 탈피하고, 오늘날 인간의 정신, 신체, 감각, 예술을 장악해 가고 있는 기술의 매체들중에서 사진 매체의 고유한 특성과 힘을 다루고자 했으며, 회화, 문학 등 다른 매체가 결코 흉내 낼 수 없는 오직 사진만이 표현할 수 있는 '사진적인 사진'을 다룸으로써 '사진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미학적 전시를 보여주자 하고 있다. 전시를 총괄한 박상우 예술총감독은 이번 비엔날레에서 선택한 이 주제 전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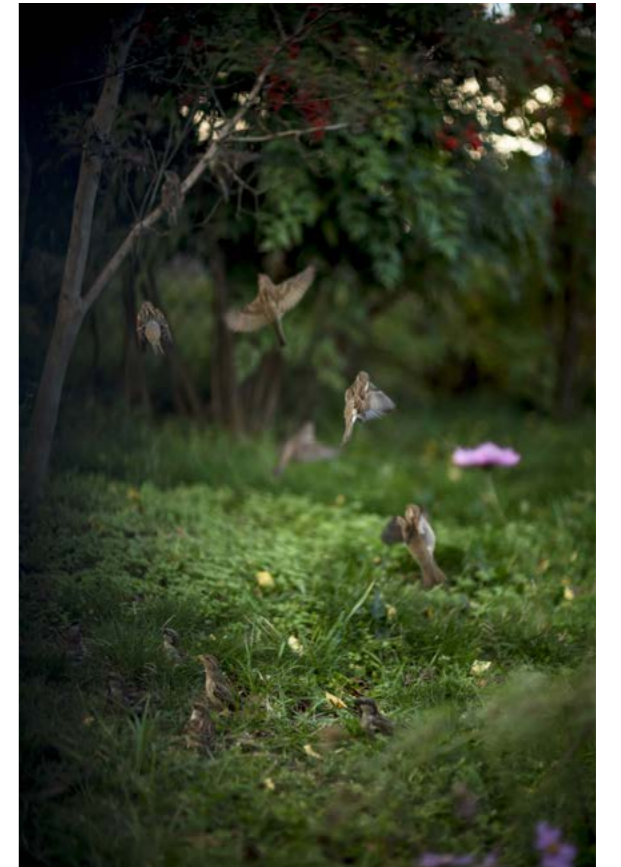
수많은 사진가와 미술가는 사진이 지닌 고유한 특성과 힘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창작의 원천으로 삼아왔다. 이 같은 창작 경향은 오늘날 첨단 인공지능 시대에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사진의 특성과 힘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사진 철학의 역사에서 거의 모든 사상가(벤야민, 크라카우어, 바쟁, 바르트, 플루서 등)는 사진만의 고유한 특성을 지속해서 탐구해왔다. 20세기 전반 벤야민은 사진의 특성과 힘을 '광학적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통해 명확하게 제시한 바 있다. 20세기 후반 바르트의 고백은 사진 '자체'와 '본성'에 대한 갈망을 여실히 드러낸다. "나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사진 '자체'가 무엇인지, [사진]은 어떤 본질적인 특징을 통해 [다른] 이미지와 구분되는지 알고 싶었다". 흑시, 벤야민과 바르트의 이러한 열망이 21세기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새롭게 부활하고 있는 것은 아

닐까? 이 전시는 사진의 특성에 기반한 동시대 작품 중에서도, 특히 사진의 원초적인 힘과 에너지가 강력하게 드러나는 작품에 주목한다. 예컨대, '광학적 무의식'의 세계, 즉 시공간적으로 인간의 감각을 초월하지만, 카메라에는 포착되는 이미지를 선보일 것이다. 눈에 겨우 보이는 작은 대상을 전시장 벽의 크기로 확대한 사진, 혹은 폭발하는 사물의 파편들을 순간 포착한 사진 등을 제시한다. 이런 사진은 감광판, 렌즈, 셔터라는 장치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창출한 이미지이다. 이런 이미지를 처음 본 사람은 우선 인간의 눈이 결코 체험하지 못한 시각적 스펙터클에 압도당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전시에서 단지 새로운 시각적 충격이나 쾌락만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사진의 다양한 특성을 깨닫고, 사진의 놀라운 마력(魔力), 에너지, 힘도 몸소 체험할 것이다. 나아가 사진에 관한 근원적인 질문인 '사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천천히 생각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 결국, 이 전시는 보는 전시이자, 동시에 '사유하는' 전시이다. 사진이 자신을 사유하는 전시. 이런 의미에서 이 전시는 '미학적(aesthetic)' 전시라고 할 수 있다. - 박상우

첨단 디지털 기술과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동시대 시각예술에서 사진의 영향력이 감소되었다는 오해도 있으나, 오히려 사진 매체의 위력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수많은 미술가와 사진가는 사진이 지닌 고유한 특성과 힘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창작의 원천으로 삼아왔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는 주제전은 사진의 10가지 힘을 의미하는 10개의 소주제 - 증언의 힘, 빛을 기록하는 힘, 순간 포착의 힘, 시간을 기록하는 힘, 반복과 비교의 힘, 시점의 힘, 확대의 힘, 연출의 힘, 변형의 힘, 관계의 힘 - 로 나누어 구성하고 있다. 이 소주제들은 사진이 발명된 이후 시대를 거둬가면서



① 김규식, 진자운동실험 (Test of Harmonograph n45011), 2023, 115X91 cm, gelatin-silver print



② 테리 와이펜박(Terri Weifenbach), 새(Des Oiseaux 9), 2015, 90x60 cm, 잉크젯 프린트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사진을 추구해 왔던 작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탐구해오던 것이기도 하다. 사진은 거의 200여년이 된 지금도 문화와 시각예술에서 그 위력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으며 거시적으로 볼 때 사회문화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사진의 입장이 바뀌어 보일 수는 있어도 사진매체의 힘은 동시대의 시각예술들 안에서 그 본질을 잃지 않고 있으며 그 힘은 영원하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구분창, 평리, 미키야 타키모토 등 우수한 국제적인 작가들 9명의 작품들이 사진의 근본적 특성인 비예측성을 고찰한다는 목적으로 특별전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연계전시로 한국사진작가협회 대구광역시지회에서 기획한 <Summertime in Q>가 대구예술발전소에서 전시되고, 초대전으로 '대구 사진사시리즈', 기획전 '대구의 그때와 지금', 우수 포토폴리오 전시, 프린지 포토페스티벌, 장롱 속 사진전, 포토북 페스티벌, 시민체험 프로그램, 사진 워크숍등 스타트업 프로그램과 부대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전시는 11월 5일까지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글을 접하는 시점에서는 아마 폐막된 다음일 것이다. 혹여 대구사진비엔날레의 개최정보를 알지 못해서 놓친 분이 있다면, 항상 2년을 주기로 9월에 열린다는 것을 기억해 두고 다음의 비엔날레를 꼭 찾아보기 바란다. 사진 비엔날레

나 국제사진제, 사진축제 같은 대형 사진행사들이 매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감사하고 귀한 일이다. 사진가들과 사진 관련 전문가라면 이런 행사들의 지속과 발전을 응원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들도 사진의 본질을 대하며 심지를 굳게하고 환경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시야를 넓히는 일에 소홀하지 않으므로써 사진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이들 중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 SNS와 포털을 통해 그저 필요에 의한 단순한 사진들이 전파되고 도배되어 가는 세상 속에서 사진이란 무엇인지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게릴라이자 인도자가 되어 보자.

① 김규식의 <진자운동실험> 연작은 레이저가 달린 긴 막대를 회전시켜 아래의 감광판(인화지 혹은 필름)에 진자운동의 궤적을 기록한 사진이다. 이 작품은 "빛이 감광판에 유발한 효과를 고정한 것"이라는 사진의 정의를 이미지를 통해 투명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가장 원초적인 이 사진은 역설적이게도 놀라운 미적 쾌감을 유발한다. 인간의 손, 정신, 의지를 떠난 자연의 무심한 회전운동이 감광판에 중첩된 선들의 흔적을 남기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경이로운 형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② 와이펜박은 워싱턴D.C.로 이사하며 뒤뜰에 나무와 꽃을 심었는





3 마틴 뢰머스(Martin Roemers), 메트로폴리스(Metropolis) - 자카르타(Jakarta), 2010, 80x100 cm, C\_type print

데, 10년이 지난 2016년, 이곳에 새들이 많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후로 2년 동안 매일 새들을 관찰하며 사진에 담았다. 이 사진의 독특함은 날고 있는 새에 초점을 맞춘 채 새의 움직임을 말 그대로 정지해 버리는 고속 셔터를 사용한 데서 온다. 이때 새는 식별하기 힘든 대상으로 변하는데, 평소 우리 눈에 보이는 새는 이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순간포착사진은 새의 내밀한 동적 에너지를 드러낸다.

4 작가는 장노출을 이용한 '종합 이미지'를 통해 얼핏 보면 무질서하지만 그 안에 매 순간 균형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도시의 높은 곳에 올라간 작가는 장노출이 가능한 아날로그 카메라를 이용해 실처럼 이어지고 물처럼 흐르는 도시의 에너지를 포착

했다. 피사체의 장시간 움직임을 기록하는 사진의 특성을 활용한 것이다. 그 결과 사람과 자동차, bus와 기차는 자신의 고유한 윤곽을 잃어버리고 색상의 흐름으로 변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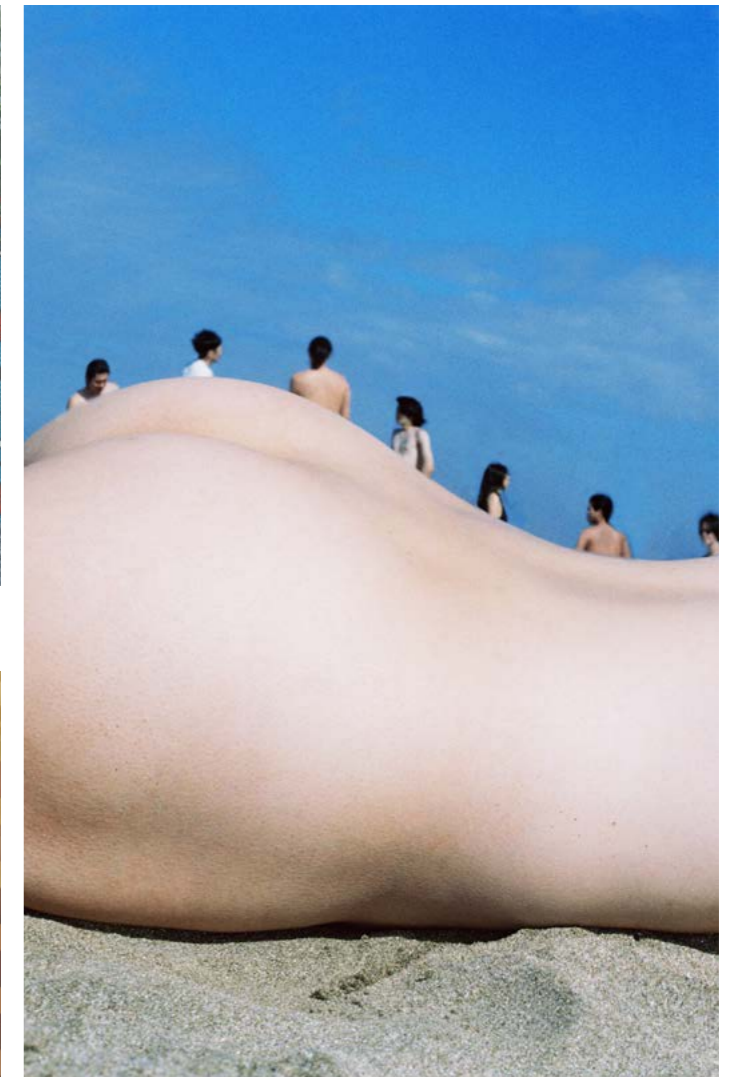
5 가족앨범에 보존되어 있던 유년기와 청년기의 사진에서 작가는 과거에 촬영했던 인물들을 재소환하여 10년 혹은 30년 후의 모습으로 재구성한다. 이렇게 재구성된 모습은 첫 사진과 연속성을 지닌다. 그들은 모두 같은 장소, 같은 상황에서 동일한 옷과 액세서리를 걸친 채 동일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불가능한 재-현실화 작업은 한편으로는 신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편하기도 하며, 동시에 두 가지 효과를 함께 제공하기도 한다. 요컨대 이 사진들은 인간적인 감정들에 대한 온



누노 페레스트렐로(Nuno Perestrelo), 몽둥이와 돌(Palos y Piedras), 2020, 60x60 cm, 잉크젯 프린트



4 이리나 웨르닝(Irina Werning), 백 투 더 퓨처 시리즈(Back to the Future Series) - Adam, Alizabeth, Agata, Adela \_ Annlove, 1998-2012, 35x50 cm, 잉크젯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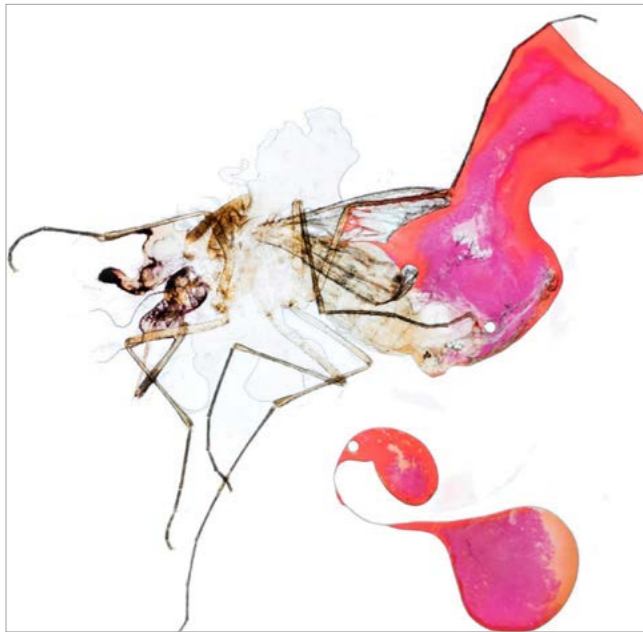


5 존 유이(John Yui), 해변의 사람들(People on the Beach), 2019, 80x53.6 cm, 잉크젯 프린트

화한 시선을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지나간 시간의 가시적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6 몸을 주제로 한 존 유이 작품들의 전주곡이라 할 <해변의 사람들>은 우연히 탄생한 작품이다. 적당한 위치에 카메라를 놓자 근경에 있는 신체 부위와 원경의 해변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동일 선상에 놓이게 됐다. 얼굴, 입술, 가슴, 엉덩이 등 모든 관능적인 신체 부위가 다른 세상에 속해 있던 무료하고 무심한 젊은이들의 실루엣과 갑자기 적나라하게 겹친 것이다. 시점의 효과는 조너선 스위프트의 『걸리버여행기』에서 거인 걸리버의 몸 위로 기어오르는 여인 릴리파트처럼 젊은이들의 신체를 불균형 상태로 만든다. 이는 마치 신체의 현실적인 관능성과 소셜미디어의 허황된 유희 사이의 대립에 대한 메타포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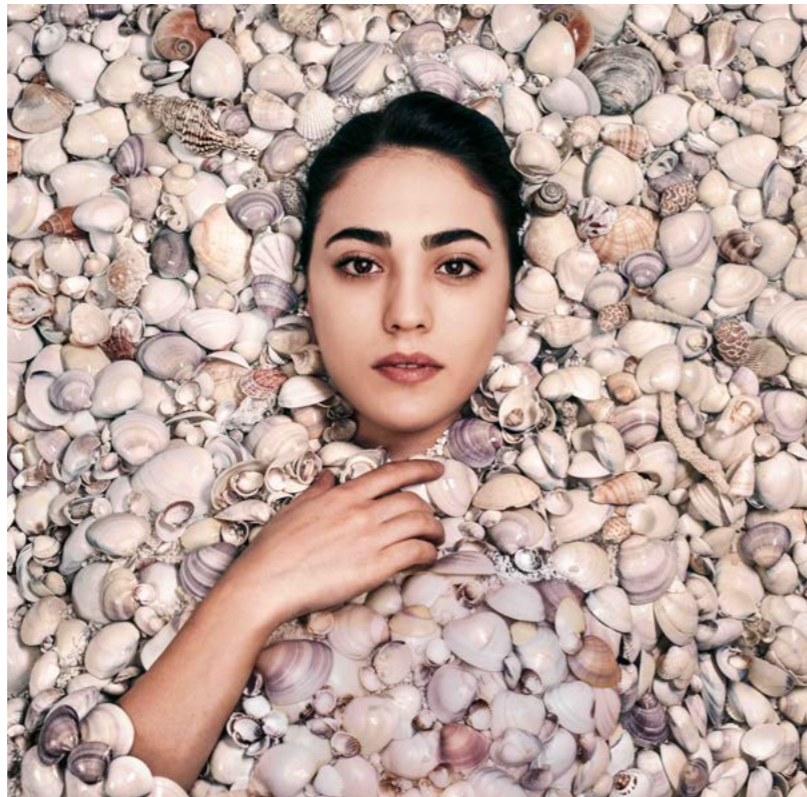
6 정지필, 엄마(The Mum 0009), 2016, 100x100 cm, 잉크젯 프린트



토펜바흐와 부르투(Edouard Taufenbach \_ Bastien Pourtout), 피라미드(Pyramides), 2021, 150x150 cm, 잉크젯 프린트

6 태어날 아이 모기에 필요한 영양분인 피를 빨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인간에 덤벼드는 암컷 모기를 작가는 '엄마'라고 지칭했다. 작가는 여름에 작업실에서 자신을 무는 모기를 잡아 유리판으로 눌러 압사시켜 나타난 피와 죽은 모기의 다양한 형태의 조합들을 부분별로 접사 촬영한 이후, 이 사진들을 이어붙여 한 장의 사진으로 만든다. 사진이 지닌 확대의 힘을 인지한 작가는 이 모기 사진을 통해 21세기 초현실주의 미술에 한층 접근한다. 이 사진에는 작열하는 피와 사체의 끔찍함과 색면 추상의 아름다움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7 <은폐>는 자연의 요소를 이용해 여성의 몸을 숨겨야 하는 의무, 베일의 강제적 착용을 매우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미리암 피루치는 자연을 이용해 얼굴과 손만 내놓은 채 몸을 가릴 수 있는 다양한 해결책을 보여준다. 강요받은 균일한 베일과는 반대로, 선택한 여러 자연의 요소들은 얼굴에 생기를 주고, 개별적인 특징이 드러나도록 해준다. 무엇보다 정면을 응시한 시선은 여성의 존재와 에너지, 의지를 나타낸다.



7 마리암 피루치(Maryam Firuzi), 은폐(Concealment), 2016-2018, 80x80 cm, 잉크젯 프린트

www.studioclub.co.kr

구매상담  
ID: 신지스튜디오클럽  
010-2253-2786

별칭인 사진이  
진짜이다

**SINJI**  
studioclub

(주)신지스튜디오클럽  
사진가를 위한 폐쇄형 인증제 쇼핑몰

포토프린터

**EPSON** **Canon**  
EXCEED YOUR VISION

미니, 배터리 휴대용, A4무한정품, A4포토복합기  
A3 전문가용 포토프린터, A2 ~ 64인치 대형

포토페이퍼, 정품잉크

**EPSON** **Canon** **SINJI**  
EXCEED YOUR VISION studioclub

대여 프로그램  
축제, 행사, 무상대여 / 02)790-1310

실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지정 우수업체

전국 스튜디오 8,000여 개거중

전국 예술학부 1,000여학과 남중



# 디지털 시대에도 영감주는 장르 정물사진 Still Life

글, 사진제공\_윤은숙(단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지도교수, 경기광주지부 지도간사)



[도판 1] Willem Kalf, Still-Life with a Late Ming Ginger Jar, 1669, Oil on canvas, 77 x 66 cm, Museum of Art, Indianapolis

사진에는 많은 분야의 사진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정물사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다양한 사진 작업을 하던 중에 2000년부터 정물사진 작업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정물사진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다. 이번 지면을 통해 정물 사진이 다른 사진들과 다른 점과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정물사진과 사진가들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한다. 먼저 정물 사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정물화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 1. 정물화의 의미

정물화 즉, 'Still life'라는 말은 '움직이지 않는 사물을 묘사한 그림'이라는 뜻이다. 정물화라는 용어는 1650년대 이후에 나타난다. 재산 유증 목록에 사물을 그린 일련의 그림들을 가리켜서 '스틸-레벤 stil-leben'이라고 하였다. 스틸 레벤은 '여전히 놓여있는 물건', '움직임 없는 사물을 그린 그림', '영혼이 없는 모델'을 가리키는 말이다. 또한 역사화, 초상화 등의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nature viante'(살아있는 자연)와 대비되어 정물화는 '죽은 자연'이라는 뜻으로 'nature morte'라 불렸다.<sup>1</sup> 종교화, 풍경화, 인물화의 부속물로 여겨져 왔던 그림 속의 소품들이 '정물화'라는 이름을 갖고 사람들의 이목을 끈 것은 17세기 중엽 네덜란드에서 유행하기 시작 한다. 이 시기를 네덜란드 황

금기라고도 하는데 경제, 문화, 예술적으로 번영을 이루었다. 당시 무역의 요지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이런 경제적 성공을 이룬 중산층의 등장은 수준 높은 소비문화의 출현으로 이어진다. 또한 다른 유럽보다 비해 종교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라 귀족, 성직자보다 중산층의 도약이 더 두드러진다. "당시의 회화는 오늘날의 영화나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대중화되어 있었다. 회화의 수집가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네덜란드 이외에는 없었을 것이다."<sup>2</sup> 라는 말은 당시의 네덜란드 사람들의 그림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 것이다. 특히, 정물화에 대한 소유는 부를 축적한

중산층들의 물질에 대한 욕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정물화는 상징의 보고라 할 수 있다. 특히 중세 시기의 종교화에 보이던 상징이 정물을 통해 표현되는데 '바니타스(vanitas)'를 주제로한 정물화에 많이 나타난다. 이런 정물화에 나타나는 상징을 알아 두어야 하는 이유는 정물 사진에도 그 상징이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림에 나타난 정물의 상징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며 대표적인 구성요소들의 이미지가 어떤 상징과 은유를 내포하고 다양한 도상을 통해 전달되는지 알아보자.

해골	죽음을 의미
촛불, 시계, 모래시계	시간의 한정과 소멸
책, 예술가의 도구	인간의 지적 한계, 예술적 탐닉의 덧없음
보석, 의복, 거울	부귀영화의 무상함
벌레, 시든 꽃	유한한 삶에 대한 비유, 삶의 허무함
깨지거나 넘어진 술잔	철나적 인생의 상징 <sup>3</sup>
식탁보의 주름이나 구김	모든 사물의 부패와 쇠퇴, 혼란과 무질서 <sup>4</sup>

중국도자기	부와 명성의 상징
술과 약기	쾌락과 유희 덧없음
고기, 소시지, 가금류, 생선	죽음
햄	기름진 부엌, 사치스럽고 죄를 범하기 쉬운 삶
청어	빈약한 부엌, 신의 마음에 들며 덕이 넘치는 생활 <sup>5</sup>
조개껍데기, 오리엔탈 무늬 카펫	진귀한 물건에 관한 집착의 부질없음
왕관과 무기	권력의 한계 <sup>6</sup>

[도판 1]<sup>7</sup>의 빌렘 칼프(Willem Kalf)의 <명대 청화백자가 있는 정물: Still Life with a Late Ming Ginger Jar>에서 보면 중국 명나라 말기의 청화백자, 오리엔탈 무늬의 양탄자, 장식적인 유리 그릇 등은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상징하고, 껍질이 벗겨진 과일, 시계 등은 물질적인 부유함이 허됨을 보여준다. [도판 2]<sup>8</sup>는 코넬리스 드 힘(Cornelis de Heem) 꽃정물화는 꽃, 과일 및 기타 사물이 시각적으로 조화롭게 배치되고 무엇보다 풍부한 색상과 질감의 표현으로 깊이와 풍요로움을 표현한다. 동시에 당시 꽃정물화는 물질적 풍요와 사치스러운 생활에 대한 자기반성과 유한한 아름다움과 인생무상과 죽음이라는 바니타스의 의미를 꽃으로 표현한

1) 이응중, 주관적 정물사진 표현연구: 사과展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사진학과 석사논문, 2007, p4  
 2) H.W 쟈슨, 서양미술사, 이일(역), 미진사, 1991, p196  
 3) 이선주, 일상의 정물을 통한 죽음과 기억에 관한 사진적 재현 - 사진연작 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조형예술학과 석사학위논문, 2021, p8-9  
 4) 장여림, 식탁위의 정물화, 라르페아트, 2023, p102  
 5) 이응중, 앞의 논문, p8-9  
 6) 정현목, 현대 정물 사진의 바니타스 미학: <Still Beautiful>작품론, 홍익대학교 대학원 디자인 공예학과 사진학 전공 박사학위논문, 2020, p12  
 7) [https://www.wga.hu/html\\_m/k/kalf/ming\\_jar.html](https://www.wga.hu/html_m/k/kalf/ming_jar.html)  
 8) <https://www.pinterest.co.kr/pin/254171972695930166/>





[도판 2] Cornelis de Heem(1631-1695), Still Life with Flowers, Cherries and Hours, Kunsthistorisches Museum

다. 다시 심도 깊게 다루겠지만 이 정물화의 구성 요소들의 상징성은 현대 정물사진에 인용, 확장되어 쓰여진다.

## 2. 정물사진의 시작

그럼, 정물사진은 어떻게 시작하였을까? 초기의 사진은 감광판의 성능이 좋지 못해 움직임 없는 건물, 풍경, 사물이 있는 정물 같은 피사체를 오랜 시간 노출을 주어 사진을 제작하였다. 최초의 정물사진은 [도판 3]<sup>9</sup>은 조셉 니세포르 니엥스(Joseph Nicéphore Niépce, 1765-

1833)에 탄생한 <식탁, La table servie>로 헬리오그래피(Heliograph)로 찍혀진 사진이다. 소재로 쓰인 물건은 - 병, 칼, 스푼, 주발과 양념통, 포도주잔, 빵 한 조각 - 은 하이라이트와 중간 톤, 그리고 형태를 감싸고 있는 그늘로 인해 뚜렷이 구별되어 보인다. 이 이미지는 협회의 연감에 수록된 도판으로 남아 있는데 다소 거친 중간 톤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래의 유리 원판은 협회에 소장된 지 얼마되지도 않아 수수께끼처럼 자취를 감추었다.<sup>10</sup> 1827년에 제작된 이 헬리오그래피는 긴 노출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려진 포도주, 포크, 스푼, 유리잔 등은 바로 정물화의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다. 그 뒤로 1837년 루이

자크 망데 다게르 (Louis-Jacques-Mandé Daguerre)가 다게레오타입 (Daguerreotype)으로 정물사진을 제작했다. 루이 자크 망데 다게르 (Louis-Jacques-Mandé Daguerre)또한 테이블과 다양한 오브제들을 이용하여 정물 사진을 촬영하였다.<sup>11</sup> [도판 4]<sup>12</sup>는 <석고 모형을 이용한 정물, Still Life with Plaster Casts>에 등장하는 putti<sup>13</sup>, 숫양머리의 조각상, 나체의 여성이 그려진 부조, 고리버들로 감싸진 병, 천이 드러워진 창, 벽에 걸린 작은 액자의 디테일까지 모두 살아있고, 하이라이트, 중간 톤, 섀도우의 톤이 점진적으로 차이가 고르게 나타나고 질감, 윤곽, 입체감이 실감나게 표현된 정물 사진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다게레오 타입은 5분부터 60분의 노출 시간이 필요했다고 한다.

윌리엄 헨리 폭스 탈보트 (William Henry Fox Talbot) 또한 1841년 칼로타입(Calotype)을 만들면서 그 후에 발행한 도판인 자연의 연필(The Pencil of Nature)에 수록되어 있는 수천 점의 원작 사진들에서 건축물이나 잘 배치된 정물 사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sup>14</sup> 특히 [도판 5]<sup>15</sup>의 사진은 파인애플과 다양한 과일 담긴 바구니의 정물 사진은 바니타스의 정물화의 전통을 이은 것이다. 사진은 사람 손으로 그리지 않고 빛으로 원하는 사물을 그대로 복제할 수 있는 당시에는 매우 혁명적인 매체로 급부상한다. 당시 사진의 기술적인 측면에 정물 사진은 긴 노출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 피사체 중 하나로 사진가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감광재료와 카메라 기술 발전에도 여전히 정물은 사진가들에게 사랑 받는다. 현재는 디지털 사진으로 인하여 사진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여도 정물사진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많은 사진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앞으로는 정물 사진이 어떻게 발전하고 정물화와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도판 3] Joseph Nicéphore Niépce(1765-1833), La Table servie, 1827



[도판 4] Louis-Jacques-Mandé Daguerre(1787-1851), The Artist's Studio / Still Life with Plaster Casts, 1837, daguerreotype



[도판 5] William Henry Fox Talbot (1800-1877), A Fruit Piece from The Pencil of Nature, 1845, Science Museum Group collection

9) <https://photo-museum.org/2004/08/13/la-table-servie-reconstruction/>

10) 버몬트 뉴홀, 정민국 번역, 사진의 역사, 열화당, 2013, p19

11) 윤희선, 시적 표현에 대한 사진의 시각적 표현 연구 韓食 관련 시 표현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p5

12) <https://www.khanacademy.org/humanities/becoming-modern/early-photo/early-photo-france/a/louis-jacques-mande-daguerre-the-artists-studio-still-life-with-plaster-casts>

13) putto의 복수형, 르네상스기의 큐피드 등 발가벗은 어린이의 상(신조어대사전) <https://badadict.com/en/161106>

14) 윤희선, 앞의 책, p6

15) <https://blog.scienceandmediamuseum.org.uk/art-arrangement-still-life-still-life/>



# 골리앗과 다윗은 지금도 전쟁 중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왜 싸우나

글 사진제공\_최승언



폭격으로 화염에 싸인 가자지구

이스라엘에 포격을 가한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 '하마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인 가자 지구와 웨스트뱅크에서 팔레스타인 정부를 선거로 뒤엎고 실질적으로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고 있는 조직이다. 이들은 이스라엘에 강경노선을 취함으로써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었다.

팔레스타인들은 이스라엘의 폭압적 지배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보다 이 하마스를 더 신뢰했다. 하마스도 자신들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주민들의 지지를 끌어 올리고 했다. 국제정세 전문가들은 하마스의 최근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도 외부의 적을 공격함으로써 지지율을 끌어 올리는 효과적인 방책으로 전쟁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라카트 알무카와마 알이슬라미야'를 줄여 하마스라 한다. 즉 '이슬람 저항 운동'이라는 뜻이지만 알라를 따르는 '헌신과 열정'을 뜻하기도 한다.



팔레스타인 민간 희생자들



팔레스타인 희생자들



팔레스타인이 통치하는 가자지구와 웨스트뱅크

1987년에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의 압제에 항거하는 시위(1차 인티파다)가 일어났다. 이때 이집트의 무슬림 형제단에서 팔레스타인 지부를 만들었는데 이 단체가 하마스다. 아흐메드 야신(1948~2004)이 이를 주도했다. 이스라엘 정부가 이 시위를 무력 진압하자 하마스는 그 보복으로 1989년 이스라엘군을 공격해 2명의 이스라엘 병사를 살해하여 그 이름을 세상에 알렸다.

1991년 이즈 앳딘 알카삼 여단이 창설되어 이스라엘군에 대항하기 시작했다. 1993년부터 하마스는 자살 테러 공격 등을 감행하며 과격해졌다. 여성들에게 억압적인 규제를 강요하고, 자살폭탄테러를 주도하는 집단으로 악명을 떨쳤다. 미성년자나 여성까지 동원한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하자 수많은 팔레스타인 저항 조직들 중에서 가장 극렬한 테러 조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2003년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하마스에 대처하

지 못했다는 이유로 웨스트뱅크의 야세르 아라파트(팔레스타인 대통령)의 외출을 제한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통치권을 축소했다.

그러자 이 강경책은 오히려 팔레스타인인들이 과격파인 하마스를 지지하는 역효과를 낳았다. 하마스는 2000년에 일어난 2차 인티파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마음을 샀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공권력이 허약해진 틈을 타서 가자지구 전역을 장악한데 이어 2006년 1월 25일 총선거에서 132석 중 74석을 획득하여 기세를 올린 적도 있다.

당시 이스라엘의 경제 붕괴로 하마스는 지배력이 가자지구로 축소되었고 2006년 6월 이스라엘이 군함이 가자 지구의 해변에 포격을 가했을 때, 하마스가 나서서 이스라엘과 싸웠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평화 조약을 여러 번 맺기도 했지만, 양측 모두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극도에 달한 상태였기에 '상대방의 멸망'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





하마스 군사퍼레이드



폐허로 변한 가자지구

런 스탠스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2012년 11월 초에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리더였던 아흐메드 알 자바리를 미사일로 공격해 사살했다. 이에 하마스가 대응한다며 까삼로켓으로 공격했지만, 이스라엘의 요격 병기 아이언 돔이 90% 요격률로 로켓포를 무력화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동시다발적 로켓포화에 아이언 돔도 힘을 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하마스의 로켓은 이란의 기술 지원으로 사거리가 갈수록 늘

어났다. 하마스의 로켓이 이스라엘의 벤 구리온 국제공항의 근처까지 떨어지면서 공항을 폐쇄하는 소동까지 일어나는 등 이스라엘 관광업에 큰 손실을 가져다 준 것도 하마스가 전력을 키워왔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

2014년 팔레스타인 여론조사에서 63%가 하마스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마스가 2014년 7월에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이자 다시 지지도가 급상승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력행

사를 하면 조건없이 하마스를 지지하는 관성이 작용한다.

2023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또한 이런 구도 속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국교정상화를 주도 하자 하마스 같은 무장단체는 설자리를 잃게 되었다. 정치적으로 위기 의식에서 하마스가 '백대방'이라는 승산 없는 전쟁에 뛰어들었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다른 중동국가들의 지지가 하마스를 향하고 있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다. 마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바로 점거할 것 같았지만 지금까지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그런 상황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관점에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 다윗과 블레셋의 골리앗 간의 전쟁, 민족과 민족간 전쟁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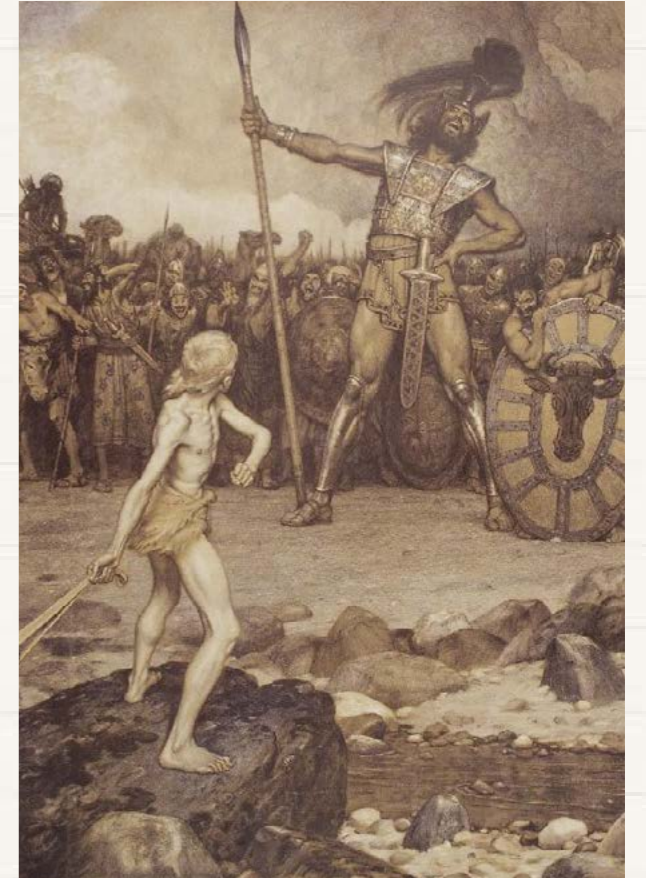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를 탈출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일이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은 당시 히브리인들에게는 천국이었다.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이미 살고 있던 일곱 개 족속들은 물론이고 블레셋이라는 민족과 전쟁을 해야만 했다.

이스라엘의 삼손은 블레셋 민족에게 잡혀 죽었고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워 승리했다.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과 블레셋 민족은 고대로부터 역사적 앙숙이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2천여 년 전에는 유대인들은 유대 땅을 점령한 당시 세계 최강 로마 제국에 대항했다. 과심하게 여긴 로마의 하드리아 황제는 이스라엘 유대라는 이름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작정했다. 유대라는 이름 대신 이스라엘과 앙숙이었던 팔레스티나(블레셋)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국제난민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후 유대인들은 세계 각 곳으로 흩어졌지만 2천 년이 지나도록 그 정체성을 유지해왔다. 19세기 들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민족은 옛 조상들이 살던 시온(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나라를 세우자며 시온주의운동을 펼친다. 이스라엘 민족이 몰려들자 이곳에 살고 있던 이집트의 아랍인들도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를 건설했는데 이것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이다.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이 남의 땅에 들어왔다는 인식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블레셋(팔레스타인)은 이렇게 부활했다. 비록 지금의 팔레스타인 민족은 당시 블레셋 민족이 혈통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스라엘 땅은 수천 년간 문명의 교차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혈통은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같은 곳에서 살고 있고 정신적으로 그 민족을 계승한다는 의지가 있는 것만으로도 고대의 블레셋과 지금의 팔레스타인과의 연결고리는 충분하고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골리앗과 대결하는 다윗

블레셋 인들은 본래 해양민족이었다. 학자들은 에게해나 크레타 섬 등에서 고대 미케네 문명을 건설한 그리스계 이주세력으로 추정한다.

성경에는 블레셋 인에 대해 "할례받지 않은 자"라고 부르며 할례 풍습이 있었던 이스라엘 선민사상을 가진 민족들과 구분하고 있다.

이들은 반은 물고기이고, 반은 사람 모양의 바다신인 다곤 신을 믿었다. 구약에는 삼손이 들릴라의 계략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눈이 뽑힌 상태에서 다곤 신전을 무너뜨려 블레셋 인들과 같이 죽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다윗은 물매 돌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쓰러뜨린 얘기는 지금도 승산 없는 싸움에서 약자가 강자를 이긴 예로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 남산골한옥마을 500 사진인 '운집' 서울사진촬영대회 개최

한국사진작가협회가 주최하고 창작사진분과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 서울사진촬영대회가 21일 서울특별시 대표 전통문화공간인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렸다. 특히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는 올해 서울촬영대회는 봄이 아닌 가을에 열리게 되었다.

이날 대회에는 유수찬 이사장을 비롯하여 백만중, 김시묵 부이사장, 조건수 고문, 정건영, 홍창일 전 부이사장, 김정식 초대작가위원장을 비롯하여 협회 임원과 각 지회지부장 및 분과위원장 등 다수의 내빈이 참석하였다. 또한 대회에는 협회 회원 및 아마추어 사진작가 5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유수찬 이사장님의 인사말에 “가을이 예쁘게 물들어가는 10월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아름다운 모델과 함께 좋은 작품 만들어 가실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사진 예술이 많은 분들의 일상 속에 쉽고 넓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란 인사말을 전했다. 이후 이성록 이사의 행사 운영 및 연출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진행되었고 본격적으로 촬영대회가 진행되었다.

다양한 소품과 컨셉을 준비한 지도위원들의 노력으로 신선한 인물 촬영 행사가 다각도로 진행되었고 참가자들의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설 새 없이 들리던 셔터 소리가 어느 덧 멈추는 시간이 되었고 서울촬영대회는 다음 행사를 기약하며 마치게 되었다. 내년 행사는 다시 이전처럼 5월 중에 신록촬영대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글.사진제공 홍보위원회 오건호 위원



서울사진촬영대회



서울사진촬영대회



서울사진촬영대회

http://dongilframe.alltheway.kr/  
**동일액자**  
 웹하드주소 www.webhard.co.kr  
 웹하드 ID: dongil6444 / PW: 6444  
 dongil6444@hanmail.net

•하드락액자(광학필름) •디아섹액자(아크릴)  
 •메탈액자(알루미늄판) •사진출력 및 기본수정

**“작품에 기술을 더한 액자와 사진출력”**  
 대한민국사진대전, 각종 전시회 제작

· 대표문의 010-6462-6266 · 다음 검색창에 **전주동일액자** 를 검색하세요

### 발전기금적립 내역

(2023년 10월말 현재)

- 27대까지 적립금(2017.2월말) : 798,001,466
- 28대까지 적립금(2020.2월말) : 218,172,424
- 29대까지 적립금(2023.2월말) : 93,715,796
- 30대적립금(2023.3월~3월말) : 18,198,128
- 계 : 1,128,087,814(a)

- 입회자 발전기금 계 : 279,100,000 (2,791명/발전기금100,000/인)
- ① 2017년 계 : 36,600,000 ※특별회원2명 제외
- ② 2018년 계 : 53,200,000
- ③ 2019년 계 : 100,900,000
- ⑤2020년 계 : 15,700,000 ※특별회원3명 제외
- ⑥2021년 계 : 27,700,000
- ⑦2022년 계 : 32,200,000
- ⑧2023년 계 : 12,800,000

- ▷ 2023년03월(42명): 4,200,000
- ▷ 2023년05월(25명): 2,500,000
- ▷ 2023년07월(22명): 2,200,000
- ▷ 2023년09월(39명): 3,900,000

- 기타 계 : 50,986,348
  - ▷ 이자(보통예금) : 68,628(28대 누계) 81,623(29대 누계) 4,110(30대 누계)
  - ▷ 이자(정기예금) : 24,403,796(28대 누계) 17,034,173(29대 누계) 5,394,018(30대 누계)
  - ▷ 이자(임차보증금) : 4,000,000(29대 누계)

- 운용 계 : 400,000,000(b)
- ▷ 사무실 이전 임차보증금 : 400,000,000(목동,한국예총 건물)
- 총 적립금 잔액 : 728,087,814(a-b)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문철상(군산)대외협력위원장 자녀결혼**  
2023년 10월 15일(일)
- **김윤정(의왕)본부이사 자녀결혼**  
2023년 10월 28일(토)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신 호(수원)운영자문위원 본인별세**  
별세 2023년 10월 15일 발인 2023년 10월 18일
- **우숙자(종로)본부이사 남편별세**  
별세 2023년 11월 1일 발인 2023년 11월 3일

## 신비의섬 제주

### 사진작품 촬영

홈 : photojeju.com

**제주도 촬영 안내**

제주 촬영 오실 때 4명까지 삼각대 4대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장노출 지도 및 풍경 촬영 실시간 포인터 안내 오전과 오후

차량 : 쏘렌토 5인승 ( 1명~4명까지 차량 포함 ) 하루 20만원

차량 : 9인승 승합차 ( 5명~7명까지 차량 포함 ) 하루 30만원

( 개인 스토리 작업 촬영 전문 개인전시 및 작품집 별도 문의)

제주도 풍경 촬영 가이드 권 기갑 연락처 : 010-3696-5202



### 보도사진분과위원회 손석윤 작가 월정사서 '출가' 사진전

지난 9월 23일 월정사 성보박물관 야외 전시장에서 본 협회 이사인 손석윤 사진작가의 오대산 월정사 출가학교 개교 20주년을 기념하는 "자유와 평온의 길" 사진전을 월정사 성보박물관에서 열었다. 이날 개전식에는 본 협회 유수찬 이사장을 비롯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주지 퇴우 정념스님과 성보박물관 관장 등 불교계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전시회 개전식 이전 유수찬 이사장은 월정사 주지 퇴우 정념스님과 다과회를 결단인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유 사장은 "사진의 기록이 중요함을 깊이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했고, 퇴우 정념스님도 "불교계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사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감사의 인사말을 하는 손석윤 사진작가



축사를 하는 유수찬 이사장

교의 평화와 깊은 가르침을 담아내고자 하였고 월정사의 아름다운 자연과 출가학교의 행자들의 수행을 매 순간순간 사진으로 담아 전달하고자 하였다. 본 사진전은 단순한 사진들의 집합이 아닌 일상과 특별한 순간들을 담아냈고 출가학교 내부와 외부에서 수행 공부 명상 그리고 스님들과 수행자들 사이의 유대감을 포착하였고 작품 하나하나에 담긴 무수한 이야기와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큰 보람이 될 것이다."고 하였다.

월정사 주지 퇴우 정념스님은 축사를 통해 "월정사 출가학교 20주년을 맞이하여 동문들과 함께 뜻깊은 사진전을 열 수 있어 기쁜 마음 가득합니다. 월정사 출가학교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역사를 만들어 왔고 욕망이 조장되고 자타의 연민이 소외당하는 시대에 종교



단체기념촬영



개전식 테이프커팅



축사를 하는 월정사 퇴우 정념 주지스님

를 떠나 신심과 수행과 서원의 여정을 동문들과 함께 해오면서 삶의 위로와 내면의 평화 자산을 돌아보고 나아갈 수 있는 긍정의 힘을 얻게 되었다고 자부한다."고 하였다.

유수찬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어려운 시기에 위축된 예술 활동에 활기를 줄 수 있는 전시회가 되기를 바라며 뿌리 깊은 불교 전통문화는 물론 월정사에서 20여 년간 운영된 출가학교의 수행과정을 기록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심오한 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월정사와 손석윤 작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진예술은 자신의 감성과 기량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홍보예술문화에 앞장서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더욱더 생생한 현장을 담고자 작가의 열정과 의지

로 완성된 감동의 결실이다."고 하였다.

월정사 출가학교는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오대산 오대성지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에서 행자들이 교육을 받고 수행하는 공간이다. 천년의 전나무숲길 이 아름다운 문수 성지 월정사에서는 한 달 동안 삭발염의를 하고 행자 생활을 체험할 출가 행자가 가능하다. 월정사 출가학교는 2004년 9월에 개교한 이래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한국 불교사에서 처음으로 삭발염의를 하고 스님이 되기 위한 예비과정인 행자 생활을 직접 체험해 보는 월정사 출가 학교에 신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이차 인연 공덕으로 겹겹이 쌓여있는 무명 업장을 벗겨내고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맺기를 바란다.

글. 사진제공 김정호(보도사진분과위원회 사무국장)



### 스포츠사진분과 정기촬영회 개최, 김포대학교에 장학금 전달도 한국사진작가협회 스포츠사진분과 정기 촬영회 및 세미나

28일(토)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김포시 모담공원로 10에 있는 김포대학교 글로벌캠퍼스에서 한국사진작가협회 스포츠사진분과위원회(위원장 장준복) 정기 촬영회 및 세미나를 이승주 부위원장의 진행으로 개최했다.

장준복 위원장이 개회 선언을 하고, 국민의례에 이어 장 위원장이 내빈을 소개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유수찬 이사장, 김부연, 윤민식 이사, 김의배 홍보위원장, 이운재 여행사진분과 위원장, 임귀빈 김포지부장, 박혜련 김포대학교 평생교육원장, 김형욱 김포대학교 태권도융합과 학과장, 김한석 김포대학교 국제교류회장, 홍종철 드론분과 부위원장, 권택희 김포대학교 태권도융합과 교수, 김용욱 한마음충청향우회 사무국장, 정재철 한마음 충청향우회 회장." 소개를 끝으로 소개를 마쳤다.

장준복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김포대학교 글로벌캠퍼스 태권도융합과 권택희 교수님과 학생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포대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촬영회를 하게 된 동기는 사진인의 저변확대와 젊은이들에게 한국사진작가협회를 알리는 계기가 되고, 사진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함입니다"라고 했다.

장준복 한국사진작가협회 스포츠사진분과 위원장이 태권도시범단 학과 대표 허재렬 학생에게 장학 증서를 전달하고, 김한석 김포대학교 국

제교류회장에게 발전 기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유수찬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은 "우리 협회에서도 회원님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사진분과에서 장학금을 주는 일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어느 곳이나 사진이 다 필요합니다. 사진진흥은 곳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올해 안에 통과시켜 준다고 했으니, 통과될 것입니다. 사진학회에서는 사진인이라 하라고 합니다. 사진진흥법이 통과되면 우리 협회에 60년 만에 큰 자랑이고 여러분들의 지위가 명확하게 확립될 것입니다"라고 격려사를 했다.



격려사를 하고 있는 유수찬 이사장

인사말하고 있는 장준복 위원장

법을 제일 반대하 광부입니다. 다행히도 사위원회에서 올해 안 으니까, 통과될 것입니다. 작가가라 하지 말고 사진인이라 하라고 합니다. 사진진흥법이 통과되면 우리 협회에 60년 만에 큰 자랑이고 여러분들의 지위가 명확하게 확립될 것입니다"라고 격려사를 했다.



단체기념촬영

김포대학 박혜련 평생교육원장이 "한국사진작가협회 스포츠사진분과 위원님들을 모시게 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이번에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장학금이 김포대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축사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스포츠사진분과에서 김포대학교 태권도융합과 학생 대표에게 장학증서 전달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했다.

한국교육사진학회 운영이사인 김노천 인천재능대학교 사진영상미디어과 외래교수가 스포츠사진의 역사, 스포츠사진의 발전, 스포츠사진의 촬영 팁으로, 종목별 촬영 포인트 포토 존 등에 관한 강의를 했다. 초점이 정확히 맞아야 하고, 얼굴이 나와야 하고, 촬영할 때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을 마친 후, 한 위원은 스포츠사진분과 위원들에게 매우 유익한 강의였다고 말했다.

오후 2시부터 김포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운동장에서 김포대학 태권도

시범단이 공연했다. 시범에 앞서 김형욱 태권도융합과 학과장이 "유수찬 이사장님과 장준복 스포츠사진분과 위원장님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태권도융합과 학생들에게 장학금 기부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감사드리며, 대표로서 앞으로 김포대학교 태권도융합과가 발전되고 스포츠가 발전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인사말을 했다.

16명의 시범단원은 씩씩한 기본 동작과 온갖 격파 등 묘기를 보여주고 스포츠사진분과 위원들은 연사로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촬영했다.

스포츠사진분과 위원들은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해안남로 820으로 옮겨서 오후 6시부터 9시 30분까지 민병덕 씨의 색소폰 연주 등 음악회를 신나게 즐겼다. 하룻밤을 함께 지내고 29일(일)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일출과 바다 풍경을 촬영했다. 촬영지에서 아침 식사 후 해산했다. 글: 사진제공 김의배 홍보위원장



장준복 위원장(오른쪽)이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김포대학교 태권도융합과 대표 학생에게 수여하고 유수찬 이사장(왼쪽)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스포츠 사진에 대해 강의를 하는 김노천 인천재능대학교 사진영상미디어과 외래교수



김포대학 태권도융합과 시범단의 공중격파



### 제30대 산악사진분과위원회 대둔산과 마이산 촬영회 개최

대둔산은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과 논산군 벌곡면 일대에 걸쳐 있는 공원으로 총면적은 24.54km<sup>2</sup>이다. 전라북도 대둔산도립공원과 접하며, 1980년 5월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1,000여 개의 암석 봉우리가 6km에 걸쳐 있는 명산으로 계곡미와 물이 특히 유명하다. 낙조대의 일몰 광경이 빼어나며, 6·25전쟁 때의 격전지인 월성고지·철모봉·매봉·깃대봉 등의 경관도 훌륭하다.

지난 9월 8일 정형식 부위원장님, 박곡희 부위원장님, 박광미 사무국장님, 방성공 재무님을 포함한 위원님들이 10월에 있을 제 30대 산악사진분과 촬영회를 위해 대둔산 및 마이산 으로 사전 현장 답사를 다녀왔다. 산행 이후 늦은 아침 식사를 하고 촬영회 세부일정 및 숙소 등 기타 내용을 논의하고 해산하였다.

본 촬영회 10월 21일 ~ 22일 동안 1박 2일 일정으로 대둔산 태고사 주차장에서 새벽 3시에 모여 출발하였다. 위원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산행에 함께하지 못하여 '안전산행하세요'하며 응원하였다. 본격적인 산행을 시작하면서 대둔산 1구간 김지무 위원님, 3구간 박곡희 부위원장님, 4구간 장군봉 강희찬 위원님이 각 구간마다 안전을 위해 대기하였다. 모든 위원님이 새벽녘에 출발하여 9시 30분에 안전하게 하산하였다. 단체사진 촬영과 아침 식사와 함께 펜션으로 이동하여 분과회의를 시작하였다.

위원장님의 인사말과 각자 지역 위원님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과 분과 발전에 관한 내용으로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두 번째날은 마이산 출사를 위해 새벽 2시 30분 기상하여 6시에 도착하였다. 모두가 기다리는 시간이 이어지면서 좋은 날씨는 아니지만 서로가 소중한 시간을 가지면서 마이산 출사를 마무리하였다. 이로써 준비된 행사는 끝났지만, 아쉬워하는 위원님들이 있어서 진안 메타길을 둘러보고 해산하였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19명이 모여 열띤 참여를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글 사진제공 이성길(산악사진분과위원회 위원장)



이성길위원장



©정형석부위원장



©박곡희부위원장-마이산



©박광미 사무국장



©방성공 재무-대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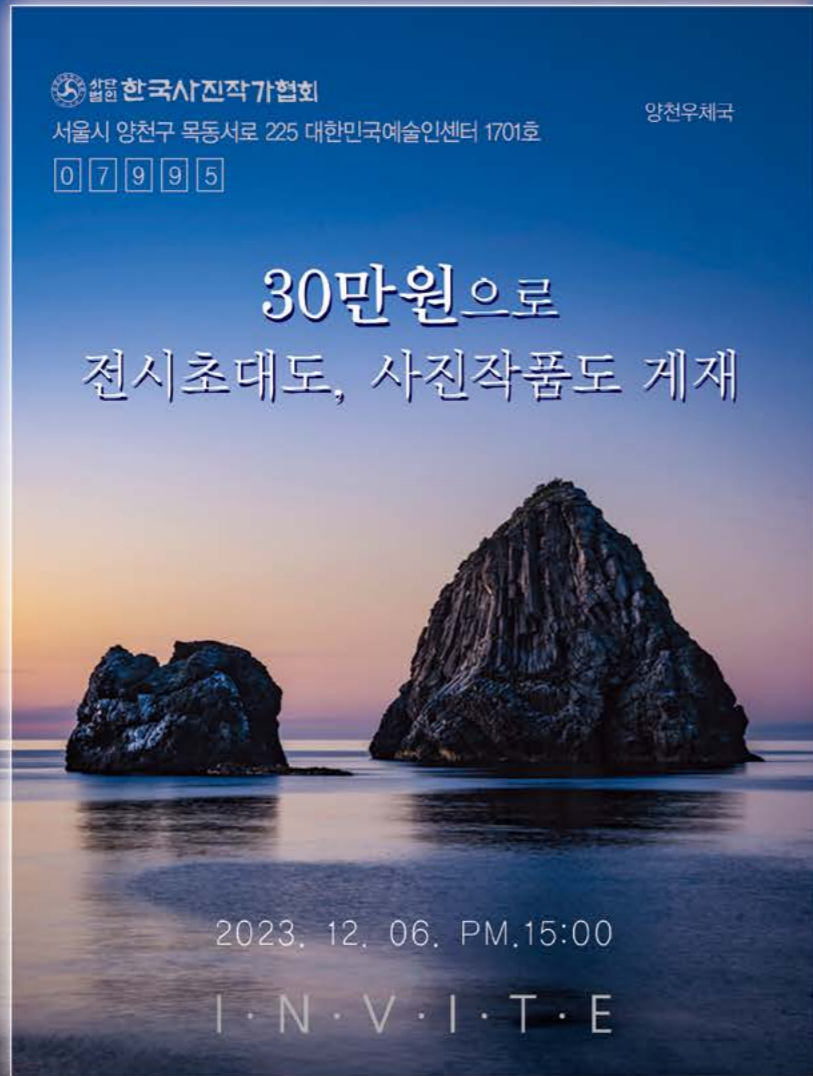


©박광미 사무국장-대둔산



대한민국 사진전문잡지 최대발행 부수 - 매월1만부

# 1만명에게 보내는 초대장!!



2023. 현재 우편엽서 125x175mm 기준 1통 발송비 400원

## ■ 게재 방법 안내

- 전시일정 사항, 작가노트, 전시작품 원본 15컷 이내 - 전월 20일 이내 전달요망 (전시 한 달 또는 두 달 전 게재해 주시면 됩니다)
- 입금계좌 국민은행(031-25-0001-564) 예금주 (사)한국사진작가협회
- 전달 이메일 sss0244@naver.com · 게재 된 월간 한국사진 20부 배부
- 게재 문의 02-2655-3131 (또는 편집장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사각 프레임으로 보는 하얀세상

문인호 개인전



전시일시 2023년 12월 5일(화) ~ 12월 10일(일)  
 전시장소 대구문화예술회관 4전시실  
 전시작가 문인호

내 안에 너 있다.

본다고 다 보이 보이는 것은 아니다.  
 보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의 풍경들  
 그 피사체를 담는 행위 자체가  
 나 스스로를 치유함이다. <중략>

햇빛 쨍한 날 대자연 속에는 늘 내가 있다.  
 그 하얀 세상을 담고 싶은 작은 카메라와 함께  
 자연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고 간직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  
 나는 자연을 남다른 예술로 표현하고 싶었다.  
 적외선으로 보는 하얀 세상을 <작가노트 중에서>



## Challenge : Aurora

김민주 개인전

해야 할 일의 방향(존재의 진리)을 명확히 찾지 못  
 하는 경우가 있다.  
 삶에 가장 두려운 건, 아니몰라(영혼) 없는 방향을  
 간다는 사실이다.  
 아이들의 엄마와 아내로 살아오면서, 나의 모든 삶  
 을 운택하게 만들 근원에 갈망했다. <중략>

즉 '오로라'는 '노에마(Noema, 관념적)의 상징(표  
 상, 심볼) 대상체(오브제, 사물)이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에 나의 미세한 감각, 감정과 세  
 심함을 두었으며, 내재된 나의 고유한 말(진리)이  
 작동하는 작품으로 담았다. <작가노트 중에서>



전시일정 2023년 12월 6일(수) ~ 12월 11일(월)  
 (전시관람 AM10:30 ~ PM06:30)  
 전시장소 인사동 마루아트센터 신관1층 (www.maruartcenter.co.kr)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35-4, 35-6) Tel. 02-2223-2533  
 전시작가 김민주(구미지부) 인스타그램(kimmj\_photos, 010-3337-0764)



## “바다, 섬, 등대, 그리고 시간의 흐름”

김남규 개인전



전시일시 2023년 11월 25일(토) ~ 11월 30일(목)  
전시장소 제주도 문예회관 제2전시실  
전시작가 抱然(포연) 김남규

우리나라의 등대는 몇 개나 될까?  
여행을 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나 사진으로 전시를 하면 어떨까 생각하게 되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촬영할 수 있는 등대의 매력을 찾아 떠난다. <중략>

아침한 밤에도 파도가 바위에 부딪치는 소리를 들으며 우두커니 서 있는 등대!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어야 볼 수 있는 크고 작은 환상의 등대섬!  
외로움과 자존심의 표상이자 그 자체로 멋진 풍경이 되어준 등대사진!  
나와 닮은 등대를 찾아 새로운 사진 인생의 그 길을 떠나려 한다.  
<작가노트 중에서>



## 추억의 저편에서

이정근 개인전

전시일시 2023년 11월 20일(월) ~ 11월 29일(수)  
전시장소 전주 시민갤러리(덕진공원 내)  
전시작가 이정근(010-9388-7766)

사진 찍기를 좋아했던 나는 1970년도에  
일본산 패트리 카메라를 구입해  
그 당시엔 집안 식구나 친인척 또는  
친구를 주로 촬영해주곤 했었습니다. <중략>

현재까지 사진을 계속 좋아할 줄 알았다면  
전주 풍남문 안으로 지나 다니는 길과 비껴거리는  
문밖 사이로 남은 거리를 남겼을 것이다. <작가노트 중에서>



## “제2회 7람회 사진전”

전시일시 2023년 11월 11일(토) ~ 11월 14일(화) (관람시간 09:00~18:00)  
전시장소 경남문화예술회관 (경남 진주시 강남로 215)  
전시작가 7람회 8인(회장 정 동 010-9402-4165)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작가라는 공통 분모 위에 영·호남 출신의 개성 강한, 그러나 언젠가부터 작품세계로 동화되었던, 이제는 지류에서 본류로 합류되어 강물이 된 우리. 빛으로 그리는 작가들의 모임 8인 8색 '7람회'의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작가노트 중에서>



## 姿態(자태), 강원의 소나무

김명운 사진전

전시일시 2023년 11월 10일(금) ~ 11월 16일(목)  
전시장소 태백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작가만남 2023년 11월 12일(일) 오후2시  
전시작가 김명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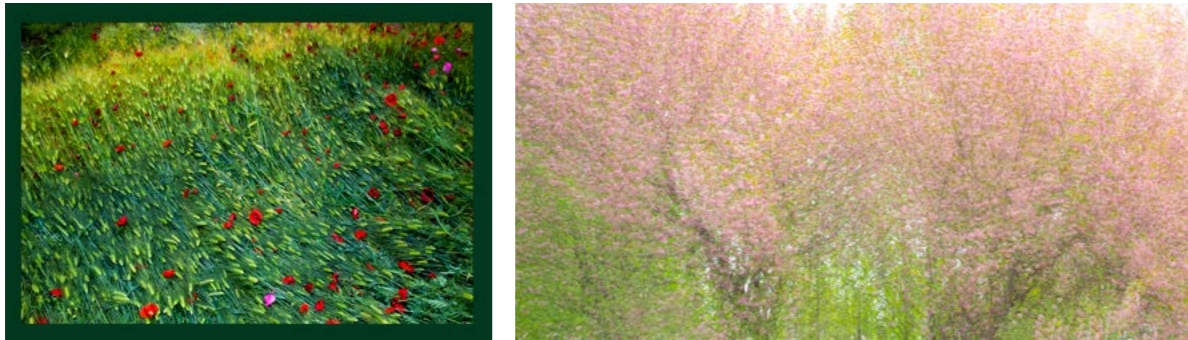
인적 없는 산기슭을 지나 능선에 오르면, 크로 작은 기암 절벽이 눈앞에 펼쳐진다. 그 웅장함에 감탄하고 있을 때, 예상하지 못한 것이 눈에 들어왔다. 바로 절벽에 뿌리내린 소나무였다. 신비하게 생긴 암석 봉우리, 그리고 그 틈에 자리잡은 소나무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어떻게 저런 험준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을까. <중략>

풀 한 포기 자라는 것조차 버거운 환경에 끝내 자리잡은 소나무를 통해 삶의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의 강인한 생명력과 송고한 姿態(자태)는 우리에게 삶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한다. <작가노트 중에서>





## 이순옥·임영제 순회전



전시일시 2023년 11월 10일(금) ~ 11월 30일(목)  
 전시장소 CAFE GROVY 카페 그로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95 유창빌딩 1층)  
 전시작가 이순옥, 임영제



## 도시는 노래다 윤성렬 개인전

전시일시 2023년 12월 13일(수)  
 ~ 12월 18일(월) (관람시간 10:00~19:00)  
 전시장소 울산문화예술회관 제3전시실  
 전시오픈 2023년 12월 13일(수) 18:30분  
 전시작가 윤성렬

길 위의 사랑방같이 소통하고 정을 나누는 시장,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감하는 문화, 디지털 매체로 인해 더 멀어지고 대면이 없어서 홀로 시간을 던져진 현대인의 소외, 일상적 삶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앞모습 그리고 뒷모습에 드러나 있는 욕망, 낯선 공간에서 유령처럼 스쳐 지나가는 사람과 사물을 산책자는 악보에 담았다. <작가노트 중에서>



## 바다가 그리운 이유 - 그곳에 스며들다 사진바다사진연구소 사진기획전



바다는 거대한 물의 나라이다.  
 그러나 바다는 물질적이고 양적인 거대함을 지닌 물의 나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광대한 우주적 은유이자 진실의 상징물이다.  
 우리는 흔히 사물의 표정을 정지된 순간으로 인식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물의 표정은 그것이 존재해온 흔적의 결과이며 찰나의 순간이라도 같은 모습의 닳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빛이 만들어 내는 순간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생명으로 발현되는 사진에는 시간과 공간의 빛과 교감하려는 작가의 숨결이 있다. <작가노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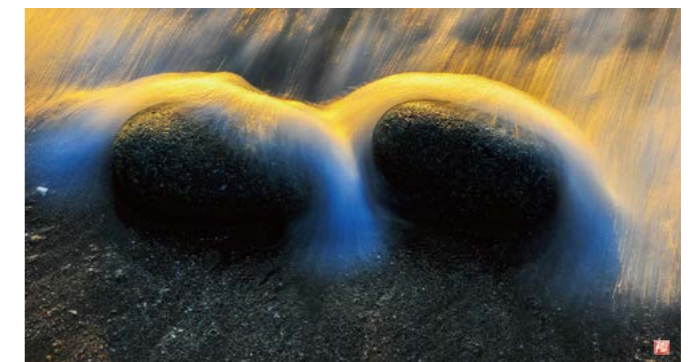
전시일시 2023년 11월 18일(토) ~ 11월 23일(목)  
 전시장소 포항 중앙아트홀  
 전시오픈 2023년 11월 18일(토) 17:00  
 전시작가 권오준, 권일영, 김미숙, 김숙경, 김진호, 김해수, 김흥준, 문혜란, 박양채, 서라성, 신재민, 아 띠, 안성균, 유병재, 유창호, 이동철, 이명숙, 이묘순, 이정철, 정현숙, 조득환, 최도영



## 김도정 사진전

카메라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여 내면을 아름답게 秘密(비밀)고리로 가는 길마다 인간의 향기를 내게하는 고향같은 포근함을 주는 벗이요 동반자입니다. <중략>

먼 동이 터오는 새벽 바다 저 편을 향해 앵글을 맞추고 찰나의 예술을 만드는 숨죽인 기다림은 설레임에 더해 가슴 조이던 날들이었습니다.  
 또 불타는 듯한 저녁 노을에 이미 기억 저편으로 숨어버린 아련한 追憶(추억)을 더듬는 시간의 조합이었습니다. <작가노트 중에서>



전시일시 2023년 11월 3일(금) ~ 11월 9일(목)  
 전시장소 여수 진남문예회관 전시실  
 전시오픈 2023년 11월 3일(금) PM5:00  
 전시작가 김도정



# 제 18 회 군산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 응모요령

출품자격: 전국 사진애호가 (외국인 환영)  
 출품료: 1인당 2만원  
 출품수: 1인당 4점 이내  
 작품내용:  
 - 군산을 홍보할 수 있는 작품(군산사계절, 고군산 열도, 은파호수공원 풍경, 금강하구연, 금강철새, 새만금, 동백대교, 시간여행축제, 군산야행)  
 - 군산의 전통문화 유적지, 주민의 생활상, 지역특산물 및 각종행사, 스포츠 행사 모습  
 - 군산의 심볼마크, 시조(갈매기), 시화(동백), 시목(은행나무)를 표현한 작품  
 작품규격: 11" X 14" 컬러 및 흑백 (테두리 불가, 규격위반시 심사 제외)  
 접수처: 군산시 죽동1길 6-3 (수송동) 피렌체빌딩2F (사)사협군산지부  
 지부장 이막래 010-4610-9007 / 사무간사 정연주 010-5752-3214  
 출품요령: 작품 뒷면에 작품명, 주소 (우편번호), 성명, 전화번호, 촬영장소를 필히 명기할 것

## 심사 및 전시

접수기간: 2023년 12월 15일(금) 소인유효  
 심사일시: 추후공지  
 심사장소: 군산 영광여고 강당  
 심사발표: 2023년 12월 20일(수)  
 전시기간: 2023년 12월 26일(화)~30일(토, 5일간)  
 시상일시: 추후공지

## 시상내역

금상 1점: 군산시장 상장 및 상금 200만원  
 은상 2점: 군산시의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사)한국예총 군산지회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동상 3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군산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가작 5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군산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 20만원  
 장려상 5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군산지부장 상금 각 15만원  
 입 선 60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군산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 10만원

## 기타사항

- 입상 및 입선작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함.
- 동일 작품이나 유사작으로 판명시 낙선 및 상권 취소됨.
- 금은동기작 수상작은 시상식 때 의무적으로 참석함.
- 입상, 입선 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측은 수상작에 한하여 향후 5년간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에 사용할 수 있음.
- 입상(선) 작품은 출품 파일을 7일안에 제출해야 함 (미제출시 상권취소).
- 출품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E-MAIL : bebe9006@naver.com

《접수마감》  
**2023년 12월 15일(금)**  
**소인유효**  
**(입회점수-있음)**

# 제13회 군산전국학생 사진공모전

여러분도 사진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2023.12.15(금)까지 E-mail 접수

## 출품자격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및 대학 진학을 준비 중인 수험생

## 출품료

없음

## 출품수

1인당 4점 이내

## 작품내용

아름다운 자연환경 및 학교생활상, 체험학습현장. 미발표 자유작으로 컬러 및 흑백 사진

## 작품규격

JPEG 파일접수(건축 3000px 이상) - 휴대폰 사진도 가능함

## 접수처

군산지부메일 : bebe9006@naver.com

## 출품요령

접수 시 **작품명, 성명, 전화번호, 주소, 학교명, 학년**을 정확히 작성하여 파일로 보낼 것

## 문의처

지부장: 010-4610-9007, 사무간사: 010-5752-3214

## 기타

- \* 입상, 입선 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측은 수상작에 한하여 향후 5년간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에 사용할 수 있음.
-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함.

## 시상 및 전시

심사일시: 추후 공지  
 심사장소: 군산 영광여고 강당  
 심사발표: 12월 20일(수)

- 사협본부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전시기간: 2023년 12월 26일(화) ~ 12월 30일(월)  
 전시장소: 추후공지  
 시상일시 및 장소: 추후 공지

## 시상내역

최우수상 1점 - 군산시장 상장 및 부상  
 우수상 2점 - 군산시 교육장 상장 및 부상(1점)  
 -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상장 및 부상(1점)  
 가작 5점 - (사)한국예총 군산지회장 상장 및 부상  
 장려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군산지부장 상장 및 부상  
 입 선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군산지부장 상장





남원-저해상임  
다시다운요청